

2017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2017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Gerald Curtis & Hugh Patrick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Thomas Wieser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초판 1쇄 발행 2017년 8월 25일

펴낸이 사공 일

총괄 송경진

지원 우형주

디자인 김정진

인쇄 한진기획인쇄

펴낸곳 세계경제연구원

전화 02-551-3334~8

팩스 02-551-3339

등록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ISBN 979-11-6177-001-7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

Gerald Curtis & Hugh Patrick



제럴드 커티스

— · —
Gerald Curtis

세계적인 석학이자 일본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박사는 동아시아 연구소장 및 일본 와세다대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음.



휴 패트릭

— · —
Hugh Patrick

세계적인 석학이자 일본 전문가인 휴 패트릭 박사는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경영학 석좌교수이자 일본경제연구소 소장 및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구센터 공동소장을 겸하고 있음.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¹

제럴드 커티스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 석좌교수

휴 패트릭

미국 컬럼비아대 일본경제연구소 소장

I. 트럼프의 미국은 동아시아에 어떤 의미인가?

제럴드 커티스(Gerald Curtis)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정상은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시 일어날 일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방미 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개인적 친분을 쌓는 데 있어 탁월했다고 보기 때 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선거 일주일 전에 주미일본대사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베 총리가 통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 총리가 자기가 당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스스로 자기가 당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선거 직후 24시간 내에 아베 총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두 사람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골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화신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베 총리는 골프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골프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같이 한 게임 하시면 좋겠군요.”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워싱턴에 오셨을 때 플로리다에 가서 같이 치시죠.”라고 답했습니다. 보아하니, 그때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던 듯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점은 아베 총리는 개인적 관계를 쌓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은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0일 후 아베 총리는 트럼프 타워(Trump Tower)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Ivanka), 제러드 쿠시너(Jared Kushner),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과 매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베 총리는 매우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미국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는 데 집중함으로써 관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매우 큰 이득을 챙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아베 총리는 미국 정책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의견

¹ 본문은 2017년 6월 8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사강연포럼(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에서 제럴드 커티스(Gerald Curtis) 박사와 휴 패트릭(Hugh Patrick) 박사가 강연한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강연 내용은 연사 개인의 의견이므로 본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앞서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를 워싱턴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매우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는 매우 짜증나는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회동에서 메르켈 총리의 악수를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해서 악수한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 19초간의 악수를 다루었는데, 아베 총리는 악수가 끝날 때까지 웃는지 찡그리는지 모를 얼굴로 얼어 있었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27라운드를 돌고 수차례 오찬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아베 총리가 대부분 주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본이 미국 제조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 독특한 사람은 극단적인 자기 도취자(narcissist)입니다. 즉, 주변을 에스맨으로 둘러싸고 자신을 추어올리는 말만 듣는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흥미로운 점은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을 주변에 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 경청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하지 않고, 좋게 칭찬하면서 교육시키는 방식을 취한 것은 매우 영리한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벌이는 동안 언급했던 일본에 대한 단 한

마디의 비판도 듣지 않고 귀국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비에 무임승차를 한다거나, 통화 조작을 한다거나, 일본은행(BoJ) 정책으로 인해 엔화가 평가 절하되고 일본 수출이 늘어났다거나, 무역 장벽이 있다는 등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의 방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베 총리와 일본에 대해 이것 한 가지만큼은 말해두고 싶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가장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본은 미국 대통령을 비판해봤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유럽 동맹국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 차이가 반영된 것입니다. 유럽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독일은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적인 선진경제국 들이 모인 지역에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에는 EU의 일부가 아니지만, 유럽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본을 보십시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이웃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중국과 북한, 러시아입니다. 모두 독재 국가이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뿐인데, 식민지배와 관련된 이슈들, 위안부 문제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끌어오는 바람에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에서 배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을 비판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강한 존재감 없이는 동아시아에서 균형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미국에

만 모든 것을 걸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포괄적인 외교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에 두고, 호주나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 국가들과 안보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본 북부 섬 문제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합의 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에 대한 기조를 바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에 지나치게 기대지 말고 경제나 안보 면에서 다른 관계들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허를 찔렸을 때에 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무역 정책과 대독일 무역 적자를 들어 독일을 맹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일 무역 관계는 독일과의 무역 관계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잘 대응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에게 상당히 정기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둘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였는가?'입니다. 미국 국민이 부적격자인 선동가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상황까지 미국 정치가 내몰린 원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5개월이 지나면 상황이 진정되고 더욱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권 첫날

만큼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Twitter)에 글을 올림으로써 온갖 문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꾸고자 합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빠지겠다는 발언은 진심이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을 철회하겠다는 말도 진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상식적인 주류 의견을 듣고 더욱 기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잘못된 희망은 버려야 합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는 혁명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국가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는 아직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막으려 했던 행동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아마도 상원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라는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교체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책에 상당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나서 많은 정치적인 임명직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그다지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에서 이번 정부처럼 많은 최고위 정치 임명직이 채워지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리더십 직위 550개 중에서 29개만이 상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니다. 550개 중 29개입니다! 겨우

70-80명의 추가 후보가 제안된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고위직 중에서 1-2명이 임명되었고, 국방부와 환경보호청 등의 다른 부서는 정부를 운영할 만큼 직원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으로는 정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정은 가족 사업이 아닙니다. 국정은 트럼프의 부동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크고, 미국 정책의 신뢰성, 신용도,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가 큼니다. 상황이 잠잠해지기를 바라지만 오늘 오후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가 상원에서 증언을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은 교착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모의했는지가 여러 신문의 제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민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성찰해야 할 점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입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한 국민 대부분이 인종차별주의자나 동성애 혐오자, 이슬람 혐오자라고는 결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불리는 중서부의 노동자 계급을 위시해 전국의 수많은 미국인이 좌절을 느끼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고민 거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워싱턴의 기득권을 비난합니다. 세

계화는 세계에도 그리고 경제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이러한 조정의 대가를 지불한 부문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기업이 위스콘신주에서 멕시코, 중국, 방글라데시로 이전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성장률이 높은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직업재훈련 프로그램 등 무역조정 지원책이 다른 선진국보다 부족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세계화가 아닙니다. 문제는 세계화되는 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자리한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코미 FBI 국장과 이메일 문제, 러시아의 해킹, 그리고 자신이 여성이고 미국 대통령으로 여성을 선출하는 데 아직 편견이 존재한 탓에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의 이유가 아닙니다. 힐러리가 당선되지 못한 이유는 미숙한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이 포럼에서 강연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운동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위험하다는 주장을 펼치면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야 했지만 한 번도 긍정적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기반인 노동자계층과 중산층에게 구애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마지막 유세에서 정말로 힐러리가 패배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힐러리의 패배를 결정적으로 느꼈습니다. 강당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 힐러리는 비욘세(Beyonce), 케이티 페리(Katy Perry), 제이 Z(Jay Z) 등의 유명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

고 객석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 오하이오주에 사는 일자리를 잃은 남성이 가족과 함께 TV에서 힐러리의 유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적힌 야구 모자를 쓰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회에서 분노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이민자와 자유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이민자와 자유주의자들에게 실제로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른바 ‘부유한 자유주의자(limousine liberal)’는 분명 싫어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수뇌는 운전기사가 딸린 리무진을 몰면서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젊고 부유한 미국인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사회적 자유주의자(social liberals)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후 통제, 동성애자의 인권, 소수자에 대한 처우 향상 등의 가치를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를 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평생을 지지했던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작년 8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무슬림을 입국시키지 않겠다는 등 언어도단인 제안을 할 때 힐러리 클린턴은 한 달 내내 햄프턴(Hampton)과 롱아일랜드(Long Island)에 머물면서 친구들에게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의 대부

분을 이번 선거의 승리 전략으로 채택한 TV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끝날 무렵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매니저에게 중서부와 위스콘신주로 힐러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리는 후보로 지명된 이후 한 번도 위스콘신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빌은 “노동자 계층(blue collar)이 많은 지역을 방문하세요. 그곳에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돌아온 반응은 “구시대적인 민주당 정치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라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보고 투표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합니다. 빌 클린턴이 “경제가 중요해, 바보야.”라고 말했지만, 힐러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단순히 일탈일 뿐이고 그가 퇴임하면 미국이 다시 평소대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과거의 미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면, 아마도 다음 대통령으로 우파의 인기영합주의자(populist)가 아닌 좌파의 인기영합주의자가 당선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국내의 여러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미국이 모든 선진국 중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세계화의 경주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 등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인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유지에 관대한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는 관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

리는 다른 국가들의 책임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익숙지 않은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은 고립주의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세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무역 상대국으로 삼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하는 미국의 태도를 매우 근본적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4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탄핵 등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러시아 조사에서 탄핵할 만한 실마리가 나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트럼프에게 전략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의 전술과 위협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과 협력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을 멈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실질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쌓고, 미

국이 북한에 가하는 압력에 대한 지지와 평가를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도 미국과 함께하고자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동아시아에는 어떤 의미인가?
질의 응답

Q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아베 총리는 미국의 참여 없이 TPP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TPP가 미국이 빠진 채로 되살아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TPP 논의가 성숙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재가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A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한은 미국은 TPP에 재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베 총리는 11개국이 참여하는 TPP(TPP-11)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꿨습니다. 미국 탈퇴 후 아베 총리는 미국 없이 TPP를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중국과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TPP-11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포함된 것입니다. 두 국가는 모두 미국 시장에 진출 때문에 TPP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TPP-11이 진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생각은 “TPP의 추진력은 유지하고 트럼프가 생각을 바꿔 돌아오기를 기다리자”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일본이 정말 그런 일이 실현되리라고 믿는다는 것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가 무역대표부 대표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장이거나 스티브 배

년(Steve Bannon) 수석고문과 같은 사람들에 비해 백악관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에게 일본의 농업 자유화는 큰 이슈입니다. 만약 일본이 TPP에서 이미 합의한 농업 부문 관련 양보를 미국에게도 준비가 돼있다면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면 협상이 상당히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본이 TPP 협상에서 합의한 것 이상을 바란다면 협상이 오랫동안 지연될 것입니다. 그동안 호주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입 쇠고기 시장을 차지하고 미국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일본은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TPP 수준까지는 농업 자유화를 할 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경제 관계의 정치학에서 제가 생각하는 매우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일본이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아소 타로 부총리가 이끄는 데 양자경제대화 설립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아베 총리가 이 회담을 제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기를 꺼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이 양자경제 대화를 이끌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일본은 분쟁 중이거나 무역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한 대화보다는 경제 협력을 강화할 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핵심 인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인디애나 주지사로서 있을 때 토요타(Toyota) 등 여러 일본 기업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펜스 부통령이 우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전략과도 잘 들어맞습니다. 경제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 처리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의도대로 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보좌관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도쿄를 방문해서 미일 무역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에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격려성 발언 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다자간 협정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Q 미국의 미국우선정책(America First Policy), TPP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탈퇴 그리고 탈아시아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부재로 중국이 매우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리더십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고 세계무역 질서를 새로 쓰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A 중국이 세계에서 주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에서 많은 주지사와 기업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각 주와 기업 차원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탈퇴가 미국이 기후 변화 역제를 위한 노력을 아예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의 이미지, 미국의 신뢰도와 리더십을 해치는 끔찍한 결정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의 주지사들이 즉시 나서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질문자의 의견이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중국이 이런 리더십 역할을 해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정치 체제를 존중하고, 여러분이 외국 기업을 대하는 방식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그러한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와 진정한 시장경제, 인권의 가치를 부인하는 독재 체제 국가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국가의 리더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THAAD) 배치 때문에 한국으로의 관광과 단체 관광을 금지하고 중국 롯데를 괴롭히는 행동은 중국이 안보 문제를 자국의 외국인 투자자와 자국 관광객에 대한 처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리더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리더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더욱 협력적인 합의적 리더십을 형성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과거 양극체제의 냉전 체제가 아닌 다극체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다극체제 세계에서는 오산(miscalculation)할 위험과 여러 가능한 조합이 매우 복잡해져서 갈등이 일어날 기회가 더욱 증가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의 말을 경

청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및 한국과 협력하여 상호 국가 이해를 달성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적 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 협력은 ‘워싱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한 다음, 동맹국과 부담을 나눌 방법을 상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거의 방식이 많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리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리먼 브라더스 쇼크(Lehman Brothers shock)나 러시아 붕괴 이전의 리더로 돌아갈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리더십을 제공할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Q 요컨대 약간의 탄핵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년간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커티스 박사님이 말씀대로 탄핵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킨들버거의 함정(Kindleberger Trap)’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킨들버거의 함정이란 기존의 패권국이 쇠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만 신흥 리더 국가는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글로벌 리더십의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예상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큰 과제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적 리더십을 주창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포럼 중 하나가 G20입니다. 세계는 집단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 의식(ownership)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부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맡을 것을 권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고 위협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G20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20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G20이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입니다. G20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부 공동 관심 이슈에 대해 이슈별 연합을 만들어 공동 대응 전략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G20은 너무 다양해서 대부분 쟁점에 대해 이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북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가능하면 중국까지 북한 문제에 대응할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쟁점을 의논하느냐에 따라 연합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매우 복잡해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슈별 연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미국인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일본과 한국에 대해 잘 아는 분이시니, 사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미국인의 시각과 반응이 궁금합니다.

A 첫째, 일반 미국인은 사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인들이 북한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그건 막아야 한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사드든 다른 시스템이 되었던 탄도미사일방어를 구축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일로 비취집니다. 대부분은 관심이 없는 일종의 기술적 질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을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만약 중국이 원유 공급 덕분에 북한에게 제대로 압박을 가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라면 중국에게 “북한 문제를 도와주면 무역 문제를 잘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답변을 요약하자면 탄도미사일방어 시스템에 대한 지지는 높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에 그토록 언짢다면 사드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즉,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없었다면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사드시스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비난하기 보다는 거울을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Q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운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불리한 협정이라고 했고 심지어 폐기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는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미FTA의 붕괴 또는 재협상 가능성을 막으려면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한미경제대화를 설립하고 한미FTA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벌고 상황을 두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를 다루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6개월 후, 심지어 다음 주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상당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나 트럼프의 불만은 무엇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아마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회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좋습니다.

Q 이번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A 먼저 개인적 친분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하는 일에 감사를 전한 다음 겸손하게 트럼프를 교육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요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베 총리가 그걸 아주 잘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쟁점을 마냥 미뤄두기만 하지 말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략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정형적이지 않은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중국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참여를 고집하려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진출램프(exit ramp)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갈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할 뿐입니다.

II. 일본 경제의 도전과제 및 전망

휴 패트릭(Hugh Patrick)

저는 일본 경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경제에 대해 이미 잘 아시고 계신다는 점이 저의 딜레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와 문제는 아마 10-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이 지난 2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겪었던 실수와 성공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 3주 반 정도 머물렀는데 규슈의 미야자키시에서 3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탄탄한 향토기업을 여럿 만났습니다. 도쿄와 미야자키에 머무는 동안 일본 경제가 근본적으로 탄탄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마침내 산업생산도 2008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실업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2.8%입니다.

문제는 가격안정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소비자 가격지수(CPI)가 연 2%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연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일본인들의 “디플레이 심리(deflationary mindset)”가 드디어 깨지고 있습니다. 최근 야마토 속달 회사(Yamato Express Delivery)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인상을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여러

분은 가격인상이 대단히 중요한 뉴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른 기업들에게 가격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가격인상은 조정 과정의 정상적인 일부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요한 변화입니다. 마침내 일본이 더욱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서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완전고용 상태에서 약간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 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국내외적으로 주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적 도전은 점점 복잡해지는 글로벌 및 역내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 견해로는 국제 경제 체제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부상과 유럽의 브렉시트(Brexit), 중동,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극적인 증가와 같은 국제 정치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도 흡수할 능력을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이 직면한 국제 환경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요한 도전과제는 국내 문제입니다.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명백한 장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좋은 성장을 달성할 방법입니다. 이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중에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포괄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반응과 참여에 아주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태풍이나 다른 기상 관련 재해에서 대지진

에 이르기까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향후 30년 이내에 도쿄 지역에 대지진이 올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도쿄에 사는 제 일본인 지인 대부분의 대응책이라는 것이 집에 며칠 견딜 수 있는 식량과 물을 상비한 정도이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사는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동일한 단층선에 있는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아마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일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저출산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와 관련이 깊은 문제입니다. 현재 일본의 인구 감소는 일본인의 두 가지 근본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첫째, 현재 목표로 널리 퍼져있는 '자녀 두 명'이라는 가족 차원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2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구 증가를 억누르는 또 다른 요소는 영주권자로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출생아 수는 1974년 이후 2명을 약간 넘는 대체 목표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저출산율을 유지할 것이고, 이들의 자녀도 낮은 출산율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들의 손자 세대가 자녀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대가 올 때까지는 아주 먼 훗날의 일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이룰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향후 최소 30년 간 일본 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임시 이민노동자(guest workers)

와 아예 일본으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은 3-5여 년 혹은 좀 더 장기적으로 머무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지만, 이들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국인을 영구 거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이민자는 연 15,0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일본인 농부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난민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난민 지위 신청자는 수천 명인데 겨우 연 15-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고령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령화는 일본의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달성한 행복한 결과입니다. 출산율 하락과 노인 인구의 절대 수치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은 지난 75년 정도 사이에 기대수명이 20년이나 늘어났습니다. 멋진 일이지는 하지만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회가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조정의 일환으로 노인 인구가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하는 65-75세 인구 비중이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소요비용과 미래 소요비용이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고, 이 제도는 매우 우수합니다. 일본이 노인 의료지출을 삭감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려서 이를 상쇄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런 방안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노인에게 지

급하는 은퇴연금과 복지 관련 제도는 단기 및 중기에는 유지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 적은 수의 젊은 층이 인구가 더 많은 노인층을 부양하게 될 텐데 그 젊은 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 방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게 되겠지만 그것 또한 끔찍하게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본이 양호한 경제성과를 내려면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자본·노동 재원의 분배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산성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문제는 일본 노동시장의 운용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증가입니다. 일본 노동시장은 칸막이화 돼있으며 경직돼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력의 40%를 차지하는 계약직 및 시간제 노동자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대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각종 부가혜택의 격차가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중소기업(SME)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산자 겸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도 지방 및 지역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심지어 수출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향토기업에 놀라게 됩니다. 제가 만나본 향토기업은 탄탄하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미야자키 시에 갔을 때 일본 최대 '소주' 생산업체, 미야자키 공항에 본사를 두고 12개의 최신 저가 항공기를 운항하는 소규모 국내 항공사, 그리고 과일과 잼, 아이스크림 등을 곁들여 디저트를 판매하는 특별 팬케이크 믹스 사업을 하는 회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회

사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둘러보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의 중소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둘째, 일본이나 한국에서 GDP와 1인당 GDP 측정 시도는 일본과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높은 가치를 적절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배우고 자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서비스는 의사나 변호사에 서부터 회계나 감사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소매업이나 식당 등의 고객 서비스까지를 모두 포괄합니다. 일본에서 임금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소매 매장과 식당이 서비스 시간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장과 식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수도 줄일 것입니다. 서비스 품질은 예전만큼 유지되겠지만, 속도는 느려질 것입니다. 일본에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근로자 수가 줄기 때문에 계산된 GDP 생산성은 늘어날 것입니다.

일본이 정상적인 선진국이고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인구를 포함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일본 경제에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일본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향상될 것입니다.



일본 경제의 도전과제 및 전망
질의 응답

Q 박사님께서서는 일본 중소기업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일본 중소기업이 매우 탄탄하고 많은 기업이 세계적인 중견기업(hidden champion)입니다. 일본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어떤 관계입니까?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제로섬(zero-sum) 관계입니다. 많은 대기업이 전통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가족기업이 차지하고 있던 부문에 침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A 20-30년 전에는 공급업체인 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긴장이 팽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강한 힘을 악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한 듯 싶습니다. 토요타(Toyota)나 다른 대기업에 납품하는 소기업들이 좋은 업무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소기업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이 신경 쓰기에는 그 시장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지역 시장과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다는 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이 탄탄하고 실적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비형(zombie)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좀비형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가 매우 낮고 은행들이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의 파산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 중소기업 부문에서 많은 조정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아베 총리는 미국의 참여 없이 TPP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TPP가 미국이 빠진 채로 되살아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TPP 논의가 성숙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재가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A 미국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히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무역 분야 인사들은 TPP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이슈의 내용을 새로운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새로운 트럼프표 무역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지만,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주요 국가의 TPP-11 불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주요 이슈의 하나입니다.

Q 일본은 현재 실업률이 2.8%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정체되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본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을까요?

A 저는 다소 주류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놀랐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력 확보가 경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규직과 노동조합이 대체적으로 고용 보장 시스템을 지속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노동력의 40%를 차지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해서는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이 경제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Q 요컨대 약간의 탄핵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년간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커티스 박사님이 말씀대로 탄핵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킨들버거의 함정(Kindleberger Trap)'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킨들버거의 함정이란 기존의 패권국이 쇠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만 신흥 리더 국가는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글로벌 리더십의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예상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큰 과제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적 리더십을 주창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포럼 중 하나가 G20입니다. 세계는 집단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의식(ownership)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부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맡을 것을 권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고 위협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G20을 효과적인 운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G20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 등의 국가는 지적 역량과 리더십 역량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지정학적 어려움이나 안보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 경제 체제와 무역 체제에는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협력적이고 생산적이며 중요한 현실을 제공해 왔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보호주의가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그 어떤 국가에도 침투하지 못하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학자 여러분, 매끄럽게 운영되는 경제를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서로 협력할 길을 찾는 가운데 강점으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십시오.

Q 미국인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일본과 한국에 대해 잘 아는 분이시니, 사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미국인의 시각과 반응이 궁금합니다.

A 자국에 투자한 기업 하나를 공격하는 중국의 반응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외국인 투자자를 합리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중국이 믿고 투자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신호였습니다.

좀 더 넓은 북한과 국방이라는 광범위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에 대해 들어본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드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커티스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사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미국인이 많습니다. 사드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포괄적 군사전략의 한 구성요소일 뿐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나치게 몰아붙일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설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딜레마는 북한이 핵보유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현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공식적 인정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공식 정책에서 매우 어려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몇 년 이내에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멈출 방법도 없습니다.

Q 이번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A 분명, 한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과 완전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는 것은 알파한 수단입니다. 성장률을 높이고, 노동 수요를 늘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임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매우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커티스 박사의 해법이 마음에 듭니다.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끝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침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정

부가 들어서면서 리더십도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다소 일반적인 경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Gerald Curtis

Gerald Curtis is the Burges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Columbia University and concurrently Visiting Professor at Waseda University and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Studies, Tokyo, and the Tokyo Foundation.



Hugh Patrick

Hugh Patrick is director of Center on Japanese Economy and Business, Columbia Business School as well as R. D. Calkins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Emeritus. He is also co-director of APEC Study Center.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¹

Gerald Curtis

Burges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Columbia University

Hugh Patrick

Director
Center on Japanese Economy and Business
Columbia University

I. Trump's America: What It Means for East Asia?

Gerald Curtis

Let me start by saying just a few word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r. Abe and Mr. Trump which may actually be of some relevance to what is going to be happening at the end of this month when President Moon meets with Mr. Trump in Washington because Abe has done a brilliant job, in my view, of handling Trump and building a personal relationship.

As I understand it, about a week before the election, the US Ambassador of Japan got a message to the Trump camp that the Prime Minister would like to call him to congratulate

¹ This is the transcript of the speech by Drs. Gerald Curtis and Hugh Patrick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June 8, 2017.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him if he were elected. And Trump was tickled that the Prime Minister of Japan thought he might actually be elected, which I think Trump himself didn't expect. Within 24 hours after the election, Abe called. Again, from what I've been told, they didn't talk policy. They talked about golf and Abe talked about how Trump sort of personified the American Dream, the expression that Trump is very fond of. In the conversation about golf, Abe said, "You know, I like golf, too. It would be wonderful to play golf some time together." And Trump said, "Well, when you come to Washington, let's go down to Florida and play some golf." Apparently, that was when the decision was made to go to Mar-a-Lago after Washington.

In any case, the point here is that Abe set his initial goal to build a personal relationship and avoid talking about substance because Trump was not yet President and 10 days later Abe was in Trump Tower to meet with Trump. Again they had a very informal conversation with his daughter Ivanka, Jared Kushner and Michael Flynn. He laid the groundwork for this relationship by taking this very personal approach and focusing on how to build a personal rapport with the US President. It has paid very large dividends.

As you know, when he met in February with Trump in Washington, Abe said absolutely nothing critical of US policy. For Trump, Theresa May had been in Washington before Abe. She took a very different position publicly at their joint press conference on sanctions on Russia. Merkel

came later and had a very testy meeting in which he refused her offer to shake hands. Trump was so pleased with Abe that they shook hands and Trump would not let go. Japanese newspapers timed it 19 seconds of this handshake during which Abe smiled kind of frozen to a kind of painful grimace till he got his hand loose. In Mar-a-Lago they had 27 rounds of golf, lunches and dinners. From what I understand and I am sure it's true, Abe did the most of the talking and Trump was in a listening mode. He talked about North Korea, about China, and about how Japanese investment in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has created employment.

One thing about this peculiar man we have as President of our country is that for an extreme Narcissist, which he is, we would have thought that he would surround himself with the yes men who would tell him how wonderful he is. I think it's interesting about Trump that he likes to surround himself with people with strong opinions. And he listens to them and then he makes up his mind. I think Abe did something very clever in not talking down to Trump but kind of talking up to Trump but educating him; it was very successful. As you know, Abe came back to Japan with Trump having said not even one word, not the slightest echo of any of the criticisms he had made of Japan during the campaign – nothing about Japan's free ride on defense money, nothing about currency manipulation and the Bank of Japan (BoJ) policy that has led to depreciation of the yen and increasing Japanese exports, and nothing about the trade barriers. So it was a very successful visit.

But I would just add just this about Abe and about Japan. We learned something very important about that trip. For Japan, there is no option but to try to develop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American President whoever she or he might be. There is nothing to be gained, at least Japanese think, from criticizing the US President. So Japan is very different from America's European allies. It reflects difference. Despite all the problems of the EU, Germany is in a region of democratic, economically advanced states with common values. Britain after Brexit is not part of the EU but it is part of that world. But look at Japan and the same goes for Korea. Look at Japan and who its neighbors are –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ll autocracies and all with nuclear weapons. The only democracy in the neighborhood is right here in South Korea with which Japan has a difficult relationship because of the problems that are left over from its poor handling of the colonial-era issues, comfort women and so on.

I think there are two lessons that came for the Japanese. One is there is nothing to be gained from criticizing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option but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way to maintain a balance in East Asia without a strong US presence in Asia. But Abe is not putting all his eggs in the US basket. I think we see in Japan now a comprehensive foreign policy strategy. With the US alliances at the center, Japan is working hard to develop a security relationship with

Australia and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Vietnam, the Philippines, and India; trying to see if they come to some accord with Putin on the northern islands issues; and now changing its tune about One Belt, One Road, indicating Japanese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is Chinese project. I think we see a strategy not to be dependent highly on the alliance but to develop other relationship, both economic and security, and to be prepared in case they get blind sighted by Trump's erratic behavior. We saw Trump being very critical of Germany as very bad because of its trade policy and its trade deficit with Germany. You know, the US-Japan trade relationship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US-German one. So there is always a chance of being blind-sighted. But so far, I think Abe has handled Trump well and Trump calls Shinzo Abe fairly regularly.

Let me turn to the two issues that I really want to talk about. One is what to expec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econdly and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n why he has won. I think we need to think about what has driven American politics into a situation in which the American public decided to elect this unqualified demagogue as president of our country. He has been in office now for five months. You would think and I had thought and I had hoped that by five months we would see the situations start calming down and more systematic and predictable behavior take place. But it is as chaotic as on Day 1. I think you should expect it to remain that way. He will continue to use his

Twitter feed to create all kinds of problems. He is serious about changing many aspects of American foreign policy. He meant it when he said the US was going to get out of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He meant it when he said we were going to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greement. You should not have false hopes that somehow the mainstream voices of common sense will capture this President and point him in a more conventional direction. He won't be able to. It is not a revolution; he will not be able to fundamentally change the country. Thank Goodness, in our country I think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still operates. You see what the courts have done to Trump's efforts to prevent immigration from Muslim majority countries. We see the problems he is having and will continue to have to get repealed and replacement of the healthcare, so-called Obamacare, because of opposition from within his own Republican Party in the Senate. So, the checks and balances system will keep him from doing something that he wants to do.

But this is a time of quite dramatic change in American policy. One issue of concern is that five months after becoming President, it is not unusual for a lot of political appointee positions not to have been filled. But never in our history have there been fewer top level political appointees not yet appointed as in this government. Of the 550 leadership positions in the US government, only 29 have been confirmed by the Senate as of this morning. 29 out of 550!

Only another 70 or 80 names have actually been put forth. In the State Department only one or two top people have been appointed and defens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all the others have not been staffed up to run the government. You cannot run the government by a few people, by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in the White House. They think they are doing it but it is not a family business. It is not Trump's real estate operation. But that is the way so far he is running it. So there is a matter of great concern and it creates great concern around the world about reliability,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American policy. We hope things will calm down but later today former FBI Director Comey is going to be testifying in the Senate. It is going to keep the Russian interference and the US election at impasse. The question of conspiracy between the Trump camp and Russia is very much on the front pages of newspapers. Trump's reaction will be to react, not to just let it alone, but to overreact. It is a very worrisome thing.

So, I think what is most important to reflect on is why this man got elected. I don't believe for a minute that it was because the majority of the people that voted for him are racists, homophobic or Islamophobic. He won because so many Americans, especially working class people in the Midwest, so-called Rust Belt, but around the country are frustrated and they are angry. And they blame the establishments in Washington for having not been paying attention to their economic concerns and for not doing

what needs to be done to deal with negativ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Globalization is good for the world and for the economy. But there are sectors of the economy that paid the price of the adjustment. They paid the price of a company moving from Wisconsin to Mexico, or to China, or to Bangladesh. And the US does less in the way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han any other advanced country in terms of job retraining programs, helping people move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where the growth rate is high. So I think the problem is not globalization; the problem is the failure to deal with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a globalizing economy. And I suspect that is true for all our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one we are sitting in today.

Hillary Clinton blames her defeat on FBI Director Comey and his email issue, on Russian hacking, and on the fact that she is a woman and there is still prejudice against electing a woman as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But that is not why she lost. She lost because she was an inept candidate. Last year when I spoke at this Forum I said I didn't think Hillary Clinton could win this election if she ran a campaign about how dangerous it would be to elect Trump as President. She had to have a positive message but she never had a positive message. And she never ran after the traditional Democratic Party base which has always been the working class and middle class people. Towards the end of the election campaign, I thought there was a real chance that she might lose was her final rally. That was a clinching point for me.

There were lots of people in the auditorium. On stage she was joined by Beyonce, Katy Perry, Jay Z and all these celebrities. And they were having a grand time and so were the people in the audience. And I was thinking if you were a man in Ohio who had lost his job and watching TV with his family looking at the rally, what will you think? You will think, “This lady lives in a world so different from mine and she is not concerned with my issues.”

Donald Trump, with his “Make America Great Again” baseball cap on, was talking at these huge rallies about the problems of immigrants and liberals to people who are angry and frustrated. They may not be really against immigrants and liberals; but they are surely against so-called limousine liberals. These people who run the Democratic Party of the United States drive around in chauffeur-driven limousines and hang out with their hedge fund friends. One of the interesting developments in the American politics is how many younger, very rich Americans support the Democratic Party. They support the Democratic Party because they are social liberals. They believe in climate control, in gay rights, in better treatment for minorities and so on. These are people who have in a way captured this Party, especially because you need so much money to be in politics these days. And who has the money? My anger at the Democratic Party which I have been a supporter all my life overwhelms me. In the month of August, while Donald Trump was running around having these big rallies and making these outrageous

proposals about not letting Muslims into this country and so on and so forth, Hillary Clinton spent the whole month in the Hamptons and Long Island, having fundraising money with her friends and mostly spending that money on TV advertising which was the strategy for winning this election. So at the end of the campaign, her husband, Bill Clinton, told her campaign manager that he had got to have Hillary go out to Midwest and Wisconsin. She had never been to Wisconsin once after nomination. Bill said, “Go to this blue collar area. She needs to go.” And the reaction was “That’s old style Democratic politics. We are in a new world, a world of identity politics.” That’s the problem. At the end of the day, people vote their pocket book. They vote their economic interest. It was Bill Clinton who said “It’s the economy, stupid.” But his wife didn’t listen.

I think you will be making a big mistake to think that Trump is simply an aberration and when he is gone, we will revert to the norm. We are not going back to America that we used to know in many important ways. If it’s not Donald Trump, perhaps the next President will be a populist on the left rather than a populist on the right. We have to come to grips with our domestic problems – the fact that the US has the highest level of inequality among all industrialized world and the fact that support for people who lose out in the globalization race is not being paid attention to. We have to come to grips with the reality that American attitude about our country’s role in the world is changing. I think the era in

which America saw its national interest to be magnanimous in maintaining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at an end. We are not feeling so generous anymore. We feel that other countries should be doing more. We are not used to in our history to this kind of situation. Before the World War II, we were isolationist. After the War, we became globalist with unparalleled power. We are still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we will continue to be but it's not the kind of power, especially in economic terms that we once had.

So in this part of the world, what country is the major trading partner for every country in East Asia? It's China, it's not the United States. I think we're seeing Trump representing something very fundamental in the way of changing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Unfortunately, in my view, he is not competent to be President but we're stuck with him. I suspect that he will be President for four years. There is a lot of wishful thinking about impeachment and so on, but it's not very likely that something comes out of the Russian investigation that would lead to that.

Now here in East Asia, one thing that can be said as positive about Donald Trump is that I don't believe he has any strategy. But his tactics and his threats about dealing with this North Korean problem if the Chinese don't do something about it come across as pretty credible. I think we see some real concern in Beijing that they have to do more to work with the US, with South Korea, with Japan to try to get

the North Koreans to decrease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 think President Moon's visit to Washington is absolutely critical and I hope that he can sort of do an Abe in the sense of building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rump, expressing his support and appreciation for what the US is doing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n having a very clear message about what he wants Trump to understand South Korea would like to see us do together. We need a strategic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on North Korea.

Q A

Trump's America: What It Means for East Asia?
by Gerald Curtis

Questions and Answers

Q Mr. Trump pulled out of TPP and Mr. Abe is trying to move forward TPP without the US membership. Japan is working with Australia, New Zealand, etc. Do you think TPP minus the US would be essentially coming back? And if that becomes mature, do you think Trump might revisit TPP?

A I place my bet on the US not coming back to TPP as long as Donald Trump i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will not change his view on this issue. Abe interestingly has changed his own view on TPP-11. After the US pulled out, he said there was no point in going forward with TPP without the United States. Now he's taking a very different position and is trying to find a way for Japan to exercise leadership in East Asia, as contrasted with China, for Japan to be a leader in East Asia and to be sustaining the free trade regime. The big problem is TPP-11 includes Vietnam and Malaysia, both of which want to be in TPP because of the access that would have provided to the US market. Whether TPP-11 is going to go forward, I am not sure. But clearly, the Japanese view is "Let's keep the momentum behind TPP and wait for Trump to change his mind and come back." It amazes me how much Japanese have convinced themselves that this is a real possibility. But I don't think it's a possibility at all. We don't really know very much what Trump will do. (Robert) Lighthizer has just been appointed and we don't know how much influence he has vis-à-vis the people like Peter Navarro and Steve Bannon in the White House. It's all

very uncertain. But I think the Japanese have made it clear to the Americans. Agricultural liberalization is a big issue for the US with Japan. If Japan is prepared to make the concessions on agriculture that has already made in the TPP and if that's what the US wants, that negotiation can happen pretty quickly. But if the US wants more than what Japan gave in the TPP negotiations, then the negotiations will drag on for a long time. In the meantime, Australia will capture the market for imported beef and in many other ways, the US will lose out. I think the Japanese have taken a strong position and they are willing to liberalize agriculture but only up to the TPP level.

The politics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which I find very interesting is that the US-Japan agreed to set up this bilateral economic dialogue headed by Pence and Aso. From what I know, this was Abe's proposal which Trump at first was reluctant to accept. He couldn't figure out what his Vice President would be doing, heading up a bilateral economic dialogue. But it was clear what Abe was after. They wanted two things. They wanted a dialogue that focuses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rather than a dialogue that focuses on the things under disputes, on trade conflict. And they wanted Pence to be the key person because as governor of Indiana he had been very successful in attracting a lot of Japanese investment from Toyota and other companies. So they see Pence as friendly to Japan. And most importantly, this fits in well with the Japanese strategy that

we are all familiar with. Economic dialogue would kick the can down the road in terms of dealing with trade disputes.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Pence showed up in Tokyo with no staff, no preparation and not able to do very much more than offer some very energizing comments on how this is a vital trade relationship and the one the US cherishes. That was music to Japanese ears. So I don't think we should expect the turning back to the multilateral agreement by this government.

Q With the America First policy, US withdrawal from TPP, Paris climate deal, and so on, and it retreat from Asia, China appears to take great advantage of US absence. Chinese leadership may be more visible and they might be ready to re-write the global trade orders. Do you think China will be able to fill that vacuum?


A This is clearly an opportunity for China to take a major leadership role in the world. Will they succeed in doing so? I am very dubious. First on Paris, I think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Trump's decision is widely opposed in the United States by many state governors and by many corporations who are banding together to try to maintain the US commitment at the state level and at the corporate level to the agreement made in Paris. The fact that Trump has pulled out of the agreement does not mean that America has really pulled out of its commitment to do what it should be doing to try to contribute to control climate change. So I think it's

a terrible, terrible decision that hurts the American image, American credibility and American leadership, to be certain. But I would be a little careful about its implications because on the immediate reaction from several state governors such as California, the Washington state and elsewhere, saying that “We will keep the commitments.” But as to China, I would be very interested in your views but I think it is very difficult for China to exercise this kind of leadership role.

Leadership means that people have respect what you’re doing, that they respect your political system and that they respect the way you treat foreign companies. Does China enjoy that kind of respect?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a country with an authoritarian regime that rejects the values of freedom, a true market economy and human rights can become a world leader. I don’t see it being a leader of our countries. I think that the Chinese government decision to stop a lot of tourism and group tours to South Korea and punish Lotte in China because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how that they mix the security issue with their treatment of foreign investors in their country and their own tourists. Is this the behavior that is acceptable from a leader of the world? I don’t believe that for a minute.

I think we are facing in a way even a more challenging situation. We are in a world in which there is no one leader. So the question is how we create a more cooperative, collegiate form of leadership. This is very difficult to do. We

are now into a multipolar world rather than the old bipolar Cold War system. In a multipolar world the dangers of miscalculation and the different combinations that become possible are so complex that the opportunities for conflict grow greater. The US is the strongest country, so we have to learn how to listen and how to work with other countries, with Japan and with Korea, in this part of the world in particular, to come up with a joint strategic view of how to serve our mutual national interests. We have not had much experience with this. Our view of alliance cooperation is ‘We’ll decide in Washington what needs to be done and then we will consult with our allies about how to share the burden of doing it.’ That’s not the way things can work as much in the future as they did in the past. So I don’t see China as the leader replacing the US. I don’t see the US reverting to the leader it was before the Lehman shock and before the collapse of Russia. So that’s the challenge how we figure out together how to provide leadership.

 To sum up, President Trump will stay for at least next four years although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of getting impeached. But as Gerry said, the probability is not that high. Also, China is not capable of exerting global leadership. That leaves us with the danger of the “Kindleberger trap”, that is, the existing hegemonic power is declining and cannot continue to play global leadership. On the other hand, the emerging leadership country is not ready to play global leadership role. So the world is in short

supply of global leadership, which leaves us a gloomy picture. It's a big challenge. What are solutions? So, I for one have been advocating for doing things collectively. One of the forums is G20. The world needs collective leadership. But the problem is there is no ownership. On that ground, I have been recommending the Korean government indirectly, as I'm not in the government now, that Korean play a role. Korea is neither a superpower nor a threatening power, so Korea can play a role. So in the upcoming G20 Summit in Hamburg, I hope our President can play some role.

A I agree with what you said. I also think potentially there is a role for South Korea in the G20. And there should have been a greater role for G20. But I am rather skeptical about how much the G20 can do for steering the world issues. I think we need to what we can do to strengthen the G20. And I think Korea is in an almost uniquely advantageous position to play a role. But I think we need to think about how we build issue-specific coalitions among countries with common concerns about some set of issues and try to come up with a common strategic approach to deal with it. But the G20 is so diverse that on most issues you are not going to get that kind of consensus. You take the issue of North Korea; it is quite clear that we need a common strategy of the US, South Korea, Japan and hopefully China to deal with this North Korean issue. I think depending on the issues we are talking about there are different coalitions. It's very complex and therefore it's easy to fail. It seems to be that's

really where we need to use our imagination more to figure out how we structure these kinds of issue-specific coalitions.

Q As a casual observer from the United States who knows this area so well,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let me ask you how you see the issue of THAAD. I am very curious to know the ordinary Americans' views and reactions.

A First, ordinary Americans have no idea what THAAD is. I think the bigger question is what Americans think about North Korea developing its missile capability to deliver atomic weapons, not only to South Korea and Japan but potentially to the United States wit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capability. And the response is "We have to stop." So in that context, building ballistic missile defenses in South Korea and Japan, I think, is seen as common sense by people who think about these issues, whether it be THAAD or some other system. It's kind of a technical question that most people don't care about.

But I think there are two things. We have to try to develop a defense system and we nee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crease. As Trump has said, if Chin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the ability to really squeeze the North Koreans' heart hard enough because of oil, I think it's kind of foolish to say "You help us on North Korea and we're going to be nice to you on trade issues." Anyway, the short answer to your question is there is a lot of support for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And if the Chinese are so upset about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it's quite obvious what they need to do to prevent THAAD, that is, to get the North Koreans to give up the nuclear weapons. If we didn't have the nuclear weapon problem in North Korea, you wouldn't have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So, instead of blaming Lotte for giving the land to the Korean government to build the system, look in the mirrors; it is a Chinese problem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issue.

Q I would like to ask about the fate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rump said KORUS is a bad deal and even talked about scrapping the deal. At least, he said the KORUS FTA should be renegotiated. What steps do you think Korea should take to prevent a collapse of the KORUS FTA or a possible renegotiation?

A Why don't you establish a Korea-US economic dialogue and include discussion of KORUS in the dialogue? And play for time and wait and see. I think it is the best strategy for dealing with this administration. We have no idea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view is going to be six months from now or even next week. What I think is probably the most useful is to engage in a dialogue, keep the dialogue at a fairly general and comprehensive level, talk about what American dissatisfactions or Trump's dissatisfactions with KORUS are, and talk about how they might be resolved.

Talking can take an awfully long time but the longer it takes, the better it is.

Q President Moon is going to Washington this month to meet with Mr. Trump. If you were asked for advice for President Moon, what advice would you give him?

A First, focus on developing a good personal rapport. Assume that Trump really doesn't know a lot about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Korea and try to find a way first to appreciate what the US is doing for this country and take the opportunity to educate him without being condescending. That's the trick. As I said, that was what Abe pulled off very well. I think your President can, too. He can also set up some kind of system for continuing dialogue, not simply pushing the issue off forever. We need some structure to create a strategic agreement and we have to be prepared to think outside the box about how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issue. I do think that it's very important to have strong sanctions to make it clearer to the Chinese that we need them and insist on their participating. But at the same time, there has to be an exit ramp; there has to be incentives for the North Koreans to engage in a process leading towards denuclearization. Sanctions alone will simply drive the North Koreans to tougher positions.

II. Japan' Economic Challenges and Prospects

Hugh Patrick

I am going to talk about Japan's economic challenges and prospects. One of my dilemmas is that I think you all already know a lot about the Japanese economy. In a sense the Korean economy's structure and problems are quite similar to those of Japan, with maybe a 10-20 year time lag. Therefor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Korea to learn from the mistakes Japan has made as well as the things it has done well in its last 20 years and even longer.

I have just come from three and a half weeks in Japan, including three nights in the Miyazaki city in Kyushu. There I was able to meet with several strong local companies. During my stay in both Tokyo and Miyazaki, I came away with a sense that the Japanese economy not only is fundamentally strong but it is doing pretty well. The growth rate is sustained and industrial production has finally surpassed its peak in 2008. The unemployment rate is amazingly low at 2.8%.

One problem is that the price stability, which I define and I think the government of Japan defines as a 2% annual rise in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has not been achieved and it will take a long time for it to be achieved. However, the good news is that I think the "deflationary mindset" of Japanese is finally being broken. I found it really interesting that when the Yamato express delivery company recently announced

that it was going to raise prices for the first time in 26 years. This was big news in Japan. You would not think that price increase would be big news. But essentially this was a signal for other companies that they, too, could start raising prices, creating an atmosphere in which price increase is a normal part of the adjustment process. It is a major change. I think Japan is finally reaching the stage of being able to move in a more normal path. When you have full employment but with some labor tightness, some wage increases and some productivity adjustment will be expected.

Like all other countries, Japan faces both maj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llenges. Most of the international challenges are due to the increasingly complex global and regional geopolitical environment. In my view,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is strong, effectively market-based and has been able to absorb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nd indeed of other challe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 Brexit in Europe, the Middle East, and now the dramatic increase i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is i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Japan faces.

Nevertheless, Japan's major challenges are domestic. Certainly, the most obvious long-run one is demography as indicated by Japan's aging and decreasing population. The second major challenge is how to increase labor productivity and how to achieve good growth, which is the most difficult and comprehensive of the three objectives of Abenomics, especially since it relies so much on private sector response

and involvement, not just the government.

A third challenge is to prepare for inevitable natural disasters ranging from typhoons and other weather-related disasters to a major earthquake. There is a significant probability that the Tokyo area will be subjected to a major earthquake sometime in the next 30 years. Most Japanese I know in Tokyo respond by having a few extra days of food and water supply at home but then basically shrug their shoulders and hope that it will not happen in their lifetime. That is probably how the people in California are behaving, too, because of the same fault line.

As I just said, Japan's most important challenge of the longer run is its declining and aging population and continuing low fertility rates. This is not a new issue. This is an issue more of future than it is of now. Japan's population is declining today because of two fundamental Japanese values. One is the value at the family level of aiming for two children, which seems to be very widespread now as a target. As a result, fertility is below two. The other holding down the domestic population is, of course, the very low acceptance of immigrants as permanent residents. Fertility has been below the replacement target of a little over two ever since 1974. My expectation is that current young generation will maintain a low fertility rate and that their children, many of them unborn, will also maintain a low fertility rate. And the question is whether their grandchildren will aim for three children instead of two and that is so far ahead of us. So I

do not think that there is any way to do anything other than acknowledging that is the way it is going to be. It is clear that the Japanese population will gradually decline for at least the next 30 years.

When we talk about immigration, we have to distinguish between guest workers and those who move to Japan permanently. Japan has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guest workers who stay 3-5 years or some quite longer and eventually they have to return to their homes. I think it would take the Japanese a very long time to change their mindset about accepting foreigners to be permanent residents. I think there are about 15,000 immigrants a year now and my suspicion is that most of them are foreign women marrying Japanese farmers. I understand that is not only a Japanese condition but it is happening in Korea as well. Japan is one of the lowest recipients of refugees, something like 15-20 refugees accepted a year out of the thousands that apply.

Let me turn to aging. Aging is a happy result of Japan's economic development and advances in the standard of living. Certainly, the proportion of older Japanese, 65 or older, is rising because of the low fertility rate and the absolute numbers of older people. Japan has achieved a 20-year increase in life expectancy over the last 75 years or so. It is a wonderful thing but it is also challenging. The challenge is how the society copes with having a higher proportion of older people. Part of the adjustment is that older people

are working. A higher percentage of those aged 65-75 works in Japan than in the United States. Nonetheless, the costs and future costs are real concerns. Japan has a universal healthcare and it is a very good program. I do not see them cutting back on elderly healthcare. They may try to pay for it by having higher fees for higher income Japanese. That would seem to me as quite a reasonable response. It is of course politically difficult to carry out that sort of thing. Retirement benefits that the government pays for the people of elderly and welfare-related programs, I think, are sustainable in the short to medium run, but not in the longer run. So the question is how the smaller number of younger people paying to support the greater number of older people is going to be handled. And it is not clear. I think eventually they will have to reduce the support for elderly people, but that will be another terribly difficult political solution.

Of course, as in Korea and everywhere else, a key to Japan's goo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future is to increase its productivity through R&D innovation, better allocation of capital and labor resources. Two of the major issues relating to productivity are the operations of the Japanese labor markets and the increasing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Japanese labor markets are segmented and quite rigid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wages plus the fringe benefits for full-time regular workers as compared to contract and part-time and other non-regular workers that are about 40% of the labor force.

Let me make just two final points. Fir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Japan are important as producers and suppliers to large firms as subcontractors, but they also provide goods and services to local and regional markets and some are even exporters. I am always impressed by the local companies whenever I go to different parts of Japan. Local companies that I meet are strong and good. When I was in Miyazaki, I met Japan's largest shochu producer, a small domestic airline company with 12 modern low-cost operating airplanes headquartered in Miyazaki airport, and a company that is doing a special pancake mix business which is being marketed as a dessert item together with fruits, jams, ice cream and so forth. It is growing tremendously. Seeing this helps me get a flavor of what is going on in Japan. When someone says that Japanese SMEs have problems, my impression is that Korean SMEs have greater problems.

My other final point is that our attempts to measure GDP and GDP per person in Japan or in Korea really do not adequately estimate the high value of service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Japanese and Korean societies. I think everybody is brought up to just learn how to provide good service. It is not something that happens universally in America, I have to say. When I talk about services, it ranges from doctors or lawyers, business services including accounting and auditing, to consumer services such as retail and restaurants. As wages go up in Japan and the costs of labor rise, retail stores and restaurants will reduce their hours

of service. We are already seeing that. They will have fewer staff to serve in stores and restaurants. The quality of service will be just as high but it will be slower. It is just going to take us more time to have a nice meal in Japan than we used to. We as consumers will be paying that cost but measured GDP productivity will be going up because there are fewer workers.

Let me just conclude by simply repeating that Japan is a normal, advanced country and a demographic leader because of its declining population. We all can learn from how Japan deals with these problems and other problems. Fundamentally, I continue to be quite optimistic about the Japanese economy. It will maintain its high standard of living and over time will gradually increase it.



Japan' Economic Challenges and Prospects
by Hugh Patrick
Questions and Answers

Q You mentioned about the Japanese SMEs. I know that the Japanese SMEs are very strong and many are global hidden champion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MEs and large conglomerates in Japan? In Korea, we have a zero-sum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SMEs and big companies. Many of the large business groups are trying to penetrate the lines which used to be dominated by traditional SMEs and micro family businesses. Do you observe this happening in Japan, too?

A I think 20-30 years ago there was big tension between small companies as suppliers and large companies. Large companies were generally perceived as exploiting of their strong power. My sense is that over time that issue has sort of gradually declined. Small firms supplying Toyota or other large firms have worked out good working relationships, so it's less of an economic, social issue. But it took time. The other issue whether SMEs can find markets is that they are too small for large companies to bother with. That's true for specific local markets and services. It takes time to sort this out. My impression is Korea is still at a much earlier stage and it's more of a problem. When I said there are good, strong SMEs, it's certainly true. But there are also lots of zombie SMEs. They stay alive basically because interest rates are very low and banks don't want to make them go bankrupt because it will cause problems for banks. But when interest rate goes up, there are going to be a lot of problems of adjustment on the SME side.

Q Mr. Trump pulled out of TPP and Mr. Abe is trying to move forward TPP without the US membership. Japan is working with Australia, New Zealand, etc. Do you think TPP minus the US would be essentially coming back? And if that becomes mature, do you think Trump might revisit TPP?

A I think it's a major mistake for the United States to decide not to participate. My impression is that in Washington the trade people who are still there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take the substance of many TPP issues and incorporate in new discussions. If that works out, then maybe there will be a new Trump public policy on trade. That's possible but I am not going to bet on it. I think we simply have to see how the trade negotiations go. One of the issues is what to do about the fact that important countries are not part of the TPP-11.

Q Japan has a very low unemployment rate at 2.8% as of now. But they also have a problem of stagnant wage. Do you think Japan will be able to see a wage growth in near future?

A It has been a surprise to me because I was trained in a rather standard economics. Labor became really tight and the way you competed was you had to raise wages to get workers. What has happened apparently is that regular workers and unions are really concerned about continuing the system of more or less guaranteed employment. So they

are quite conservative about asking for wage increases.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non-regular workers who are 40% of the labor force, you do see much more labor market wage increases that are beginning to show themselves in the economy. I think this is a process in which wages will gradually continue to rise. I think it's just in the beginning but I think it will persist. And in that sense I am fairly optimistic.

Q To sum up, President Trump will stay for at least next four years although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of getting impeached. But as Gerry, said, the probability is not that high. Also, China is not capable of exerting global leadership. That leaves us with the danger of the “Kindleberger trap”, that is, the existing hegemonic power is declining and cannot continue to play global leadership. On the other hand, the emerging leadership country is not ready to play global leadership role. So the world is in short supply of global leadership, which leaves us a gloomy picture. It's a big challenge. What are solutions? So, I for one have been advocating for doing things collectively. One of the forums is G20. The world needs collective leadership. But the problem is there is no ownership. On that ground, I have been recommending the Korean government indirectly, as I'm not in the government now, that Korean play a role. Korea is not a superpower and not a threatening power, so Korea can play a role. So in the upcoming G20 Summit in Hamburg, I hope our President can play some role.

A Let me say I agree with you completely about trying to utilize the G20 as an effective operation. As you say, so far it's not done as much as it should have. Countries like Korea or Australia or others have the intellectual capacity and leadership capacity. I hope that you will do that. I wanted to make one different point. Generally, when we're talking about difficulties, we're talking about geopolitical difficulties and security difficulties.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great strengths in our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and in our trading system. This has always provided sort of a reality that is cooperative, productive and important and we have to be very careful not to let creeping protectionism come in in the United States, Korea, Japan or anywhere. Just don't take a good operating economy for granted, you political scientists and political makers. Take it as something that you have to also protect as one of the strengths as we try to figure out how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Q As a casual observer from the United States who knows this area so well,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let me ask you how you see the issue of THAAD. I am very curious to know the ordinary Americans' views and reactions.

A I was really surprised that the Chinese responded by attacking a single company that has investments in China. I think the Chinese have been trying very hard to demonstrate the world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and that they would treat foreign investments reasonably. So they have sent a major signal that they are not a reliable country to invest in. I was quite surprised about that.

The broader issue of what to do about North Korea and defense, THAAD becomes a symbol among those of us who have heard about what THAAD is. But as Gerry said, many Americans don't know what THAAD is. It's just one component of a comprehensive military strategy of how you try to contain North Korea. I am skeptical that the Chinese will push North Korea far enough. I don't expect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e American government policy at dilemma is it will not accept the idea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officially. It may accept that reality in practice but it cannot officially. So it is a very difficult adjustment process we have to do in American official policy because I think the reality is that it is going to be a nuclear military capable nation within a few years. And I don't see any way that's going to be stopped.

Q President Moon is going to Washington this month to meet with Mr. Trump. If you were asked for advice for President Moon, what advice would you give him?

A Clearly,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identify what your priorities are. And if you are talking about the economic side, you really want to talk about policies to promote efficient and effective allocations and full use

of resources. I think that the government has always an important role but hiring a few thousand people in the public sector is an opportunistic way to go. One should be thinking of more fundamental longer-run problems to increase the growth rate, to increase the demand for labor, and to work to those sorts of things. Those are reference to the very specific proposal about try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nd change from temporary workers to permanent workers which are very complex issues. I like Gerry's solution. Have a dialogue. You talk and talk and that's when you find a solution for difficult issues. But this is a new government with new leadership. It takes time to find out what this (Korean) government would really like. As an economist, I just would give him rather standard economic advice.



토머스 비저

Thomas Wieser

2012년 1월부터 유로존(Eurozone) 19개국 재무차관 협의체인 유로실무그룹(Euro Working Group) 의장으로 다양한 활약을 해옴. 2009년부터 맡아온 유럽금융위원회(European Financial Committee) 위원장도 겸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재무부에서 경제·금융정책 총국장을 역임한 바 있음.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 유럽의 도전

토머스 비저

유로그룹 차관회의 의장
유럽금융위원회 위원장

오늘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제목은 '브렉시트와 트럼프(Between Trump and Brexit) 사이에서'인데 바꿔 말하면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년 전에는 아무도 이런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경제적 도전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도전이고 때로는 위협이기도 한 매우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간다고들 말합니다. 수차례 얘기됐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아마도 철의 장막(Iron Curtain) 붕괴 이래 처음 본 최고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는 함께 움직입니다. 경제가 빠진 정치, 정치가 빠진 경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변화와 태도는 많은 부분이 '세계화'라고도 일컬어지는 비교 우위에서 발생하는 상당히 구조적 변화입니다. 엄청난 기술 변화 역시 이러한 사고방식과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저성장, 저생산성 증가 그리고 물론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브렉시트, 즉 진퇴양난의 상황은 대중의 불만을 매우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불만은 제가 언급한 이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고용, 환경, 금융안정, 이민 문제, 안보 그리고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직면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다소 이질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두 강력한 다자기구에 대한 강한 믿음과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다자기구는 국제 협정 망과 공동의 이해를 통해 글로벌 공공재(공공선) 생산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 공공약 퇴치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오늘날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화두는 “문제는 더욱 세계화되었고 그 중 일부는 더욱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변칙적이면서도 역효과를 낳는다는 이해에 기반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계화, 기술, 이민, 안보, 공공질서, 금융안정 등의 과제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떻게 보면 초국가적인(supranational) 개체로, 28개국이 모여 개별 국가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영향력을 세계무대에 행사합니다. 유럽 밖에서 유럽연합과 회원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을 떠올

립니다.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혹은 네덜란드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도 모두 이런 글로벌 도전에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공통의 언어와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대부분에서 대중의 분노가 나타나는 원인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누군가가 세계화 또는 기술 변화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손해를 본 이유가 폴란드 때문인지 중국 때문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연합 정치인들이 내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중국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정치인들과 유럽연합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단일 회원국의 정당성 문제를 넘어 유럽연합의 정당성이나 책임성에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각 회원국 국민은 저마다 유럽연합의 문제 해결 방안에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행동의 자금조달 문제로 덴마크인 동료 및 폴란드인 동료와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둘은 매우 견해가 달랐고 자국의 특징적 색채를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여전히 과거 석탄공업이 많이 남아 있고 덴마크는 풍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선두주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유럽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해 어떻게든 해결책을 궁리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동질적인 민족국가에서 보다는 어렵습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느끼는 압력이 외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은 불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세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태도를 취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몸을 움크리고 문제를 무시하려 들 것입니다. 아니면, 유럽연합 내부의 협력과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내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루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한 이후 다른 선진국들이 겪었던 위기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많은 위기였던 2008년 금융위기와 그 이후 시점에서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고질적인 문제는 “(유럽연합은) 민주적 책임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한 대립입니다. 이는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수많은 의원들로 구성된 거대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직접 선출되는 유럽의회로 인해 국가 의회의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국가 의회는 유럽연합 문제에 그 어느 때보다 적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문제를 대중과 국회로 돌려줘야 합니다. 유럽은 투표와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시스

템입니다. 이를 ‘투입지향 정당성(input legitimacy)’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절차를 거쳐 나오는 결과는 대중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산출 혹은 결과지향 정당성(output or outcome legitimacy)’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 기술 발전, 국제무역은 인류 전반에 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와해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울 무렵에는 3-4번째 수업에서 교수님이 “자유무역은 후생에 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좋은 교수라면 “승자가 패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면 자유무역은 후생에 최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MS 워드가 발명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누군가 “승자가 패자에게 보상을 하려거든 ‘삭제’ 버튼을 눌러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무역은 최적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유무역은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심지어 아프리카의 부룬디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뒤처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분배 효과로 인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유럽 밖 국가들보다는 잘 아는 선진국이 여럿 있는데, 여기서도 대중의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포퓰리즘의 정반대 격인 프랑스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포퓰리즘에 완전히 반대되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승리를 얻

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장기 축구 토너먼트 경기에서 첫 두 경기를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세계 챔피언십을 거머쥘 때까지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결과지향 정당성을 생산하고 민주주의, 투표로 선출되는 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려면 포용적 성장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제가 관건입니다. 바로 “분배를 가능케 할 성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어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보다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를 거치면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불균형을 경험했습니다. 통화동맹 내의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가 2008년 위기 이후 유럽이 때때로 경험한 불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통화동맹이 곧 정치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관계와 미시시피 주와 매사추세츠 주 사이의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시시피 주에서는 매사추세츠 주에 경상수지 적자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 간에는 모든 사람이 이를 의식하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포용적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부 회원국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호 연계된 각 회원국도 뭔가 해야 합니다.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가 남긴 말을 차용하자면, “유럽연합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가 아니라 당신이 유럽연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즉,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높은 수준의 금융탄력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된다면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자간 제도와 과정의 연결망에서 국제금융의 운영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을 함께 합니다. 이 일의 대부분을 금융안정위원회(FSB) 그리고 지금은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합니다. 우리는 바젤에서 결정한 사항을 국내에서 대동소이하게 이행하는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은행이 미국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의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험이 생겼습니다. 미국 의회의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 Committee) 위원장이 재닛 옐런(Janet Yellen) 연준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정부 관료가 외국 영토에서 협상을 주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자 기구에 대한 후퇴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자 기구에 속한 주요 국가 하나가 후퇴할 경우, 제 어머니가 가르쳤던 교훈이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즉,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일이 잘못돼 스웨터의 실을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이제 스웨터는 사라지고 70m의 털실만 손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게 됩니다. 다자 기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방한한 이유도 다자주의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다자주의에 대한 부분적 후퇴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국제

파트너와 함께 더욱 회복력이 강한 금융기관을 만드는 일에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대규모 은행이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취급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7-8년간 유해 파생상품과 파생상품 시장의 안전을 강화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부문을 더욱 회복력 강한 시장 기반 자금조달 도구로 변모시키는 데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파트너가 한 명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국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는 글로벌 은행 규범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연계 되어 있을까요? 유럽연합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는 브렉시트가 실행되었을 때 일어날 상황과 유사합니다. 지금처럼 런던에 있는 한국의 은행이 예전처럼 독일, 프랑스 혹은 네덜란드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완전히 지금처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거래를 규제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동일한 그 규칙이 아닌 (같은 내용의 국가별) 규칙을 똑같은 수준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은행과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적으로 불분명한 일이 발생하면, 현재는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하고 있는 사법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국가가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난 이후에도 유럽연합이 이전과 같은 기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계화로 발생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도전은

일부 국가가 다자주의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면서 발생하는 과제 그리고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태들을 일어나게 한 그 세력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세계화로 발생한 도전의 일부가 됐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큰 어려움은 이와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민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동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대중과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간 충성심이 좀 흐려지면서 정치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미 암시하신 유럽연합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테이퍼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재정정책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에는 경제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낮아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130%가 넘는 회원국도 있습니다. 유로존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운신할 여유가 있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회원국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국가는 이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는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단지 그런 인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5-10년간 완전한 재정동맹으로 나아가지 않고도 유로존의 효율성을 개선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완전한 재정동맹으로 바뀌면 누군가 중앙에서 외부 또는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보와 기후변화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60년 사이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유럽 대륙에 유럽연합 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수많은 전쟁으로 갈라진 유럽대륙의 평화를 위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평화 프로젝트로 설립된 것은 대단한 선견지명이었습니다. 덕분에 유럽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순전히 국내 문제였던 문제가 이제는 유럽대륙의 나아가 세계적 문제로 변화했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국가들을 포함한 35-45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대륙에서 어떻게 글로벌 도전을 다룰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글로벌 문제에는 글로벌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해결책을 원하면 더욱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욱 큰 목소리를 내려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 제목이 “브렉시트와 미국의 대통령 사이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협입니다. 정부와 다자기구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는 위협이자 기회입니다. 서로 협력을 강화하면 약해지기는커녕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아시아의 주요국인 한국이 다자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과 유럽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한국과 유럽 모두 다자기구와 다자기구가 제공하는 안보의 혜택을 받았고,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똑같이 위협에 처할 것입니다. 기회가 승리하고 위협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질의 응답

Q 유럽에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과 중앙은행 총재가 있지만 유럽연합 재무장관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 유로존 재무를 담당할 유럽연합 재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에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 재무장관 임명에 대한 논의를 되살렸습니다. 당초 이 생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도 지지합니다.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A 유럽 재무장관 임명 아이디어는 좋은 생각처럼 들립니다. ‘유럽 재무장관’이라는 문패를 보았을 때는 더욱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은 “어떤 종류의 재무장관인가? 유로존 모든 19개 회원국 예산을 운영하고 결정할 것인가? 유로그룹(Euro Group) 회의를 주재하는 재무장관 19명의 상위 장관으로서 소규모 예산을 받아 업무를 책정할 사람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능한 절충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질문은 “유럽 재무장관이 있는가?”보다는 “(그에 맞는) 유럽 예산이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유럽 예산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 예산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유로존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가?”입니다. 답이 ‘예’라면 그 예산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난 20-30년간 이와 관련된 매우 지성적 논문과 연구가 나왔습니다. 특히, 20-30년 전에는 “경기대응적 자금 조달을 제공, 지원할 만큼 규모가 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가? 위축될 경우, 경제에 추가적인 자극과 부양을 제공해서 유로존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 안정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가”입니다. 물론, “어떻게 이러한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 헌법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회원국의 분담금 이전으로 조달할 것인가? 헌법상으로 더욱 어려운 범유로존 조세제도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각 회원국의 헌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각국 의회의 헌법상 권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재정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럽의회나 입법 기관 등의 다른 헌법상의 선출 기관에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멋진 문패 정도로 끝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즉시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문패를 보는 데만 만족하고 열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헌법적, 정치적, 재정적 질문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을 시 유럽연합 예산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단언컨대, 아주 어려운 논의가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예산은 GDP의 약 1%이고 영국이 나가면 약 100억 유로

의 구멍이 뚫립니다. “유럽 대륙 전체로 놓고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미미한 액수를 둘러싼 싸움은 상당히 격해질 것입니다. 재무장관을 임명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겠습니까? 1%, 2%, 아니면 5%를 추가해야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100억 유로를 두고 격한 논쟁이 오가고 있으므로,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야심 찬 해결책에 포함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단독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Q 그리스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스는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유럽연합에 개별 국가의 이런 재정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있습니까?

A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입니다. 당시 금융위기는 2012년에 국채 위기로 번져서 진짜 유로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위기는 유로의 구조가 불완전한 데다 재정 원칙 공조와 협력의 문제, 공동 금융감독 문제 그리고 개별 회원국의 경쟁력 차이의 문제가 겹쳤던 것이 원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납입자본이 800억 유로인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설립했습니다. 유로안정화기구는 최대 5,000억 유로까지 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키프로스, 그리스 등의 부채 조정 문제를 겪는 유로존 국가의 구조 조정과 안정화에 사용됩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키프로스에 적용한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연평균 6-7%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국가 부채를 기존 130%에서 114%로 낮출 계획입니다. 스페인은 지난 10개월 사이에 신규 일자리가 65만 개 창출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브뤼셀에서 그리스 측과 만나 다음 지급을 결정할 회의에 참석합니다. 솔직히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8월에 종료됩니다. 그리스는 올해 후반이나 2018년 초에 시장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유럽이 아니라 그리스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스의 정책이 예측가능한지, 성장 친화적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GDP의 100%에 가까운 부채 탕감도 있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면 2018년 중순에 이어질 것입니다. 만기 구조, 즉 그리스 정부 부채의 (상환) 조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호의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자금조달 조건이라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채의 평균 만기는 약 30년입니다. 그리스 정부 국채에 대한 평균 이자율은 약 1%입니다. 총 자금조달 수요도 여타 많은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국채 만기가 이미 2060년대까지 연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언론에 소비되고 그 즉시 잊히는 그리스를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했던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이었습니다. 부

채 탕감이 아니었습니다. 네, 부채 탕감이 더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리스 국채의 만기 구조를 본다면 그리스 국채를 살 것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환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재정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제도적 거버넌스도 작용합니다. 투자자는 행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원합니다. 물론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과 비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가 아니라 독일에 대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에도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불균형이 있다는 점에서 질문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미시시피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 생산성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다른 나라와 생산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미시시피 주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버스에 올라타 다른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유로존은 미국이나 스위스처럼 최적통화지역(optimal currency area)이 아닙니다. 노동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포용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유럽연합과 유로존 제도를 집에 얹은 지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 벽, 즉 탄탄한 국가 정책이 없다면 지붕은 필요조차 없습니다. 벽이 없으면 지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붕 없이 벽만 있을 경우, 즉 탄탄한 국가 정책은 있지만 유럽연합 정책

뼈대라는 지붕이 없으면 비가 오는 즉시 비에 맞아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각국과 유럽연합 전체 정책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그리스를 더욱 잘 지켜봐야 합니다.

Q 곧 독일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전망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독일로 떠나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이번에도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악수 없이 만날 것입니다. 독일 G20 정상회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이 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강연에서 답하고자 했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G20에 30개국이 참여하는데 글로벌 문제를 각국이 해결하는 것보다 다자적 해결이 더 낫다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문제에 해법은 없는가? 이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적용됩니다. 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항하겠습니까? 혼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와 환경 정책을 잘 펼치고 있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제협력 협약을 맺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기구에서 제공하는 제도 및 절차를 거쳐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발생할 만한 우려 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성급하게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경로를 거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타 공인하는 힘을 가지고 단독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번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가 어

땡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의 크나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다자 시스템을 믿고 신뢰합니까? 우리는 각자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국가의 대표이고 안보 문제와 경제적 이해, 경제적 관심사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큰 국가보다 다자 시스템에 훨씬 더 많이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는 지난 5년 여 치렀던 여러 G20 정상회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6-9년 전 G20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의 붕괴를 막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G20은 이를 위해 선택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제도의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의 위기를 막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WTO는 특정 국가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나쁜 리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들 합니다.

A 어떤 사람은 나쁜 결정이 결정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결정이 너무 나쁘면 정말 그런가 싶습니다. “WTO 다자 시스템이 2016년 미국 선거 이후에서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2016년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나타난 선거 결과는 벌써부터 시작된 현상의 상징이자 증상이었습니다.

WTO는 지난 10년간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는 1950년대 이후 이어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라운드에서 보았던 단순한 무역 자유화보다 국가의 자율성을 더욱 저해한다고 인식되는 영역에서 국제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제안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미국에서 체결한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보면 매우 사법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국가 차원의 스탠더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맺었던 무역 자유화나 관세 인하 등등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브렉시트나 다른 조치를 말하기 오래 전에도 이미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다자적 해결의 우월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스템의 비효율은 WTO에서 시작하지도,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전체 UN 시스템은 회원국 수가 너무 많아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더 잘 운영되고 조금 더 비용절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해 둔 것은 언제나 회원국이었습니다.

Q 시장에서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고 양적완화 축소(tapering) 징후도 있습니다. 지난 주 ECB 포럼에서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ECB 총재가 한 발언도 중요한 조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적완화 축소 조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다면 신흥시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A 유럽은 다른 분야에서처럼 통화정책과 다른 정책 영역의 역량이 상당히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리오 Дра기 총재의 발언의 의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입장 변화가 가까워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통화정책 입장 변화가 파괴적이지 않고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조짐이 있으면, 이를 재정정책 등의 다른 정책 영역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재정정책 영역과 관련해 재무장관들이 인플레이션율을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으로 맞추되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반적 정책 입장을 정하려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 미국 연준(Fed)이 처음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다시 한 번 긴축 발작(taper tantrum)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되돌리고자 하는 생각은 타당한 입장입니다. 또한, 조만간 일본중앙은행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G20 정상 중 한 명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제 금융 상황에서는 국제 금융 협력 및 공조를 훨씬 우선했을 것입니다. 특히, 급격하고 변동이 심한 자본 이동에 취약한 신흥경제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흥경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흥경제국 전체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부터 선진국으로 번지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20 정상들이 여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문제가 G20의 우선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G20의 문제는 누구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G7과 G2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세계는 G0의 세계 또는 무극(no polar)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집단적 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이 필요합니다. G20은 집단적 리더십 포럼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Q 일반 유럽인들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언론에서는 주로 안보, 미사일 관련 문제와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듯합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유럽의 대중에게 흔히 비쳐진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도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기관이 이런 대화에 더욱 깊이 참여하거나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 전체와 개별 유럽 국가가 글로벌 안보 체제(global security architecture)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

식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군사강국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유럽 정치인과 시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그만큼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안보에 참여하면 미국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소의 거리감도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인식도 한 몫 합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직접 투자를 통해 유럽에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대 무역국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런 인식은 마치 서로 다른 국가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두 개의 다른 인식을 보입니다. 길거리의 일반인에게 한국은 거대 무역국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한국과 유럽은 다자 기구를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동의 이해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Q 양겔라 메르켈 총리를 위시한 유럽과 도널드 트럼프가 무역,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타협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갈등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A 희망 사항과 현실적인 예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협정을 되살릴 희망이 있다고 언급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를 보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는 주장을 믿어

야 할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풍부했고 양적 제한이 일반적이었던 30-40년 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양쪽에 모두 문제는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광폭 동체 항공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는 다자 분쟁해결 장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을 빚을 중대한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통화조작은 없었다는 최근에 발표한 통화 조작에 대한 문구는 상황을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 당국의 공식 분석에서 환율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역할이 공정하게 묘사됐다고 봅니다. 무역 분야로 상황이 변진다면, 현실이나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불상사이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겠습니다.



Thomas Wieser

Thomas Wieser is a well-known economist and a politician in the European Union. He is the president of the Euro Working Group as well as of the European Financial Committee. Previously he worked as Director General for Economic Policy and Financial Markets in the Ministry of Finance, Vienna.

Between Brexit and Trump : Global Challenges for the EU¹

Thomas Wieser

President

The Euro Working Group

The European Financial Committee

What I was invited to talk about was about the global challenges of the European Union and we called it "Between Trump and Brexit", which you could also say "between the rock and the hard place". Obviously, these are the issues which nobody would have talked about five years ago. We are in very new circumstances and what I will attempt to do is try to explain the political challenges and the economic challenges and how I see the possible solutions.

As one says, we live in very exciting times, which is sometimes a challenge and sometimes a threat. What one can definitely say, which is being repeated again and again, is that these are the times of political uncertainty and highest degree of unpredictability that we have seen probably since the fall of the Iron Curtain. Economics and politics go hand in hand. The one without the other is unimaginable. Many of the

¹ This is the transcript of the speech by Mr. Thomas Wieser, President of the Euro Working Group as well as the European Financial Committee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July 5, 2017.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shifts and attitudes that we are seeing today have been driven also by quite tectonic shifts in comparative advantage which are also known as globalization. Many of these attitudes and shifts have also been driven by enormous technological change. All of these are against the background especially in industrialized economies of low growth, low productivity growth, and of course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rock and the hard place in the title – Mr. Trump and Brexit – are, to my mind, just two very similar symbolic expressions of popular discontent. This popular discontent is very closely connected to the reasons I mentioned. They are intimately connected to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employment, environment, financial stability, issues of migration, security, and public order.

This is, therefore, an era where we are confronted with global challenges probably more than ever before; but we have national policies to combat global challenges. That is a somewhat heterodox situation. We have all grown up with a strong belief in and the strong background of strong multilateral institutions which through a web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mmon understandings work towards producing global public goods and combating global public bads. The big question that we are facing today between the rock and the hard place is: “Is there in a way a certain retreat from this understanding which would be very unorthodox

and counterproductive because the problems are more global and some would seem to want more national solutions?”

All of these challenges that I have mentioned – globalization, technology, migration, security, and public order, and financial stability – are impacting tremendously also on Europe, not only in its external manifestation but also internally. The European Union is in a way a supranational entity and that helps us, 28 member states, to bring a higher impact to the global stage that most of us could not do individually. If you talk about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utside of the European Union, most people think of Angela Merkel and now Emmanuel Macron. Very few people think of the smaller member states like Portugal, Sweden, Finland, Austria, Belgium or Holland who all by themselves would be affected by these global challenges and have no voice on a global scale. Therefore, if we want to have an impact on these issues as the European Union, we need to find a common language and a common approach to these issues. This explains also some of the problems of popular discontent that many are facing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but in many countries of the industrialized world and emerging markets.

Take as an example somebody who has lost out to globalization or technological change in France. This person does not ask if he or she lost out to competition from Poland or China. What this person says is "My politicians in France

and the European Union have not managed to save my job." They do not accuse somebody in China of having through competition made them lose their jobs. For them, it is the French politicians and the European Union that have not managed to do what they should be doing.

This poses, of course, significant challenges for the legitimacy or the accountability of the European Union which go beyond legitimacy questions of single member states. Of course, we also have the issue that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member states have different views of how the European Union should contribute to solving these issues. I have been engaged in discussions between, for example, Danish and Polish colleagues trying to come to grips with the financing of climate change actions. They have very different views which are colored by their national heritage. In Poland, there are still many coal industries from olden days, whereas Denmark is a global leader in wind energy and renewable energy. How did they come to grips with each other? But we have the institutions where you talk to each other and where you work with each other and somehow thrash out a solution. But it is more difficult than in a fairly homogeneous nation-state.

So Brexit and Mr. Trump are both manifestations of pressures that we are all feeling. It is a time of discontent because we are in a time of dislocation. This will not be over very rapidly. This means of course that these manifestations

can be a risk where then you retreat onto yourself and say "The world is getting very complicated." So we will do it by hunkering down and trying to ignore the issue. Or you see it as a great chance to deepen coopera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and to deepen international partnerships. So this raises the issue then to me internally of what we can do in order to internally stabilize ourselves. We have thought and written extensively on these issues and try to draw the lessons from the crisis of 2008 and following which was a much more demanding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crisis than that other industrialized economies went through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Lehman Brothers crash.

One of the issues, a perennial issue in the European Union, is the confrontation by the people that say "You are lack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You are lacking democratic legitimacy." This is very astonishing because there is a huge European Parliament with so many parliamentarians; but having a European Parliament, which is even directly elected, leads to a loss of legitimacy of national parliaments. National parliaments are to a lower degree than ever before seized with the European Union business. We have to bring the European Union business back to the people, back to national parliaments. We have a system which is legitimized through votes, participation, which is "input legitimacy". But what comes out of the political process is not owned by the people; therefore, we need to move towards more "output or outcome legitimacy".

The second issue which we have to work on is inclusive growth. As I said, globalization, technological advance, and international trade are very beneficial overall to the humankind, not only to the industrialized economies but to emerging markets. But it has its disruptive effects. When we were back in university and learning economics, approximately in the third or fourth lessons some professor turned up and told us "Free trade is optimal for welfare." If he was a good professor, he would say: "Free trade is optimal for welfare, if the winners compensate the losers." And over the last twenty years since the invention of MS Word, somebody has highlighted: "If the winners compensate the losers, then press the "delete" button." We have been surrounded by people who say that free trade is optimal, full stop [sic]. And free trade was good on aggregate for Austria, Japan, Korea, the Netherlands, and possibly also for Burundi. But we have produced more and more people who have been left behind. Through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how the world has drawn together, the distributional impact has produced the votes for Brexit. It has produced the votes for Mr. Trump. And it has produced popular discontent in many industrialized economies which I know better than the countries outside of Europe.

We have been lucky so far. We have got a new French President who is the exact opposite of this populism. We have had electoral results in the Netherlands which have been the exact opposite of this populism. But because you have won

a few, it does not mean it has gone away. It is like winning the first two soccer matches in a long tournament but you are not there until you have won the world championship. If we want to produce a higher degree of output legitimacy and rejuvenate belief in democracy, elected governments and therefore the European Union,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making growth more inclusive.

But then the question is, of course, the third point: "Where does all of this, the growth that you can distribute, come from?" Competitiveness will need to be something that we need to work on more intensively in some member states than in others. We have experienced over the crisis imbalances between Germany and Italy, for example. Significant current account deficits within the monetary union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sometimes destabilizing experiences we have had since 2008. That stems also from that fact because the monetary union is not a political unio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Italy and Germany compar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ssippi and Massachusetts. In Mississippi, the current account deficit with Massachusetts is not that it does not matter, whereas between Germany and Italy everybody is cognizant of the matter and it matters. That is why we need to work not only towards making growth more inclusive but increasing productivity especially in some of the member states. We have to make labor as a factor of production more attractive. And much obvious is interconnected with what

individual member states need to do. So if I may paraphrase John F. Kennedy, “Don’t ask what the European Union can do for you, but ask what you can do for the European Union.” That means increasing the quality of economic policy making in some of the more productivity lagging member states.

All of this together, the fourth point, works well if there is a high degree of financial resilience and stability. We have grown up accustomed to a multilateral web of institutions and processes where we work together on elaborating rules of how international finance works. Most of this is done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and nowadays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in Basel. We have had the gentlemen's and gentlewomen's agreement that we go home and implement what we decided in Basel more or less identically. That is how and why a Korean bank can do business in other countries and a German bank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It has only worked because nearly everybody participated in this. We believed in it and now all of a sudden there is a danger. We read letters from the head of the Financial Service Committee of US Congress to Janet Yellen talking about how impossible it is for bureaucrats to lead negotiations in foreign lands on matters which have not been publicly decided by politicians.

We increasingly see signs of retreat from multilateral institutions. If there is a retreat by one major country from multilateral institutions, it is a bit like what my mother used

to teach me. That is, if you have a sweater and things start to go, you start pulling the wool. And all of a sudden there is no sweater any longer and you are just holding 70 meters of wool in your hand, with nothing left and you are naked. The same would happen with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t is why I am coming to Korea to discuss attitudes towards multilateralism and to see what it is if there is a danger of partial retreat from such global multilateralism. What we have been trying to do together with our global international partners is making progress on having more resilient financial institutions. In bringing to an end the principle of large banking of “too big to fail”, we have over the last 7-8 years been very successful in making toxic derivatives and derivatives market safer. We have been fairly successful in transforming the so-called shadow banking sector into a more resilient market-based financing instrument.

But, what happens if one partner withdraws? What happens then to your country? How is it interlinked into the global system of banking rules? What happens to the European Union? This is also parallel to what happens when Brexit occurs. Will a Korean bank that is located in London right now be able to do business with German, French or Dutch firms as it was doing before? It is possible but not really likely because it would need to follow the identical, not the same, rules that regulate the conduct of business in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It would need to be supervised in exactly the same manner as the German, the French, the

Dutch and the Belgian banks, for example. In case judicial doubt ever arises, there would need to be a judicial oversight which at present is exert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states of the European world where one country leaves the European Union completely but nevertheless we have the same business environment as befor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membership and non-membership. There is no evading that.

We are faced with challenges from globalization, challenges of some countries' attempted retreat from multilateralism, and the same forces that shaped these unmentionable things. They have also been facing us to the extent that makes people question why they are part of this. So these are the big challenges we are facing right now. Others to include are: demographic change and considerable aging of European societies, notwithstanding significant impact of migration which we are experiencing right now. It also has led to political problems as the homogeneity of societies is put into question, the allegiance of the people to the politicians and those who run the society sometimes gets a bit more tenuous.

As for the other challenges, you already made an allusion to it in a way which is the incipient monetary policy tapering which will be forthcoming not only in the European Union but amongst major central banks of the world. We have issues where we need to get better in the conduct of fiscal policies which have the twin objectives of economic stabilization and

fiscal sustainability. It is very difficult to talk about the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with a very low debt to GDP ratio. But we have got member states with the debt to GDP ratio of 130% and beyond. There is a tension within the Euro area where some member states are perceived to have adequate fiscal space and others absolutely no fiscal space. The perception is that those who have the fiscal space do not want to use it, but those that do not have the fiscal space are using it. I am just saying that this is a perception. So on this, we are working towards making the Euro area more efficient without any perspective of over the next 5-10 years of moving towards a full fiscal union where somebody acts as the center running the fiscal policies of those outside or the member states.

Lastl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are things which are a challenge but they are an impetus to do more together. All of these issues show that the development of the last 60 years shows that there is no alternative on the continent of Europe to the European Union. It was with great foresight that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was founded as a peace project which brought peace to the continent that had been divided by multiple wars not only over the previous decades but over the previous centuries. It has brought peace.

But the challenges have changed. Challenges that used to be purely domestic have become continental and then global challenges. How do you deal with global challenges in a continent which has 35-40 different sometimes very

small states? It does not work. Global challenges need global solutions. If you want to work for global solutions, you've got to have a large voice. If you want to have a large voice, do it together and that is what we are trying to do. That is why I think and the title of my talk said something Between Trump and Brexit and that is why I think this is, of course, a risk for all of us. These populous changes in attitudes towards government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 are a risk but it is a chance. It is a chance if we realize that doing more together makes all of us stronger, not weaker. And with this, one of the reasons why I came to Korea is to see how multilateralism is perceived by one of the major players in this part of the world. I think we have more in common than many people in our population would realize. We have profited from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from security that it provides and we are jointly at risk if this disappears. I hope that the chances win and the risks disappear.



Between Brexit and Trump :
Global Challenges for the European Union

Questions and Answers

Q In Europe, there is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 central bank governor, but you do not have an EU finance minister. Regarding that, there has been a discussion about whether there is a need to appoint an EU finance minist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Eurozone's finances. Recently, President Macron has revived this idea of appointing an EU finance minister which is now being backed by Chancellor Merkel who initially was lukewarm toward this idea. How much possibility do you think it has to be actually materialized? And if so, how soon will it be?

A A European finance minister sounds good, especially if you look at the sign above the door that says "I am the European Finance Minister."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question is: "What kind of finance minister are we talking about? Is this person responsible for running and deciding on all 19 member states' budgets? Or is a finance minister who is the boss of the other 19 finance ministers who chairs the meetings of the Euro Group and has a small budget to run his/her affairs?" Then there are quite a number of intermediate possibilities as well. So the question is maybe less of "Is there a European finance minister?" but more of "Is there a European budget?" And many people say: "But there is a European budget already." It is the EU budget for the 28 members. So the question is: "Should there be a budget for the Euro area?" If the question is answered with "Yes", what should the budget be doing? There have been intellectually very satisfying papers and studies written on this for the last

20-30 years. One of the aspects of that, especially 20-30 years ago it was strongly focused on, "Can you have a budget that is so large that it can provide and help anti-cyclical financing? In the case of a downswing, can it provide an additional impetus and stimulus to the economy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Euro area?" That is something which a lot of member states would not be in favor of.

Another possibility is to have an additional budget in order to co-finance investment. The question is: "Is this intended in order to supplement conditions for fiscal stability or not?" And then the question, of course, is "How such a budget is financed? Is it financed simply by member states' transfers of contributions, which is constitutionally not a great problem? Or is it financed by a Euro-wide taxing system which is constitutionally much more difficult?" So, much of what you were asking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that needs to be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How does it impact my national constitution?" Does it, and presumably it does, have an impact on the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national parliaments? And if it has an impact on the fiscal constitutional competence of the parliaments, then you have to give added legitimacy to it from somewhere else, from some other constitutionally elected body, be it the European Parliament, be it the Assembly. So if you just have the door with a nice sign above it, it is fine. But as soon as you open the door, questions upon questions abound. So, many people would probably prefer just to have the sign above the door

and not open the door because that is raising exactly these constitutional, political, and financing questions. And what do you do with the money? Is it economically very meaningful or not?

Maybe just in finalizing, we have got very serious discussions on what will happen to the EU budget once the UK withdraws from the European Union. And I can tell you that this will be very difficult; it is starting to get very difficult. The EU budget is around 1% of GDP and the Brits when withdrawing will leave a hole of around €10 billion. You might say “This is peanuts for a whole continent.” But the fight around these peanuts will be quite strenuous. If we open the door with the finance minister's sign above it, how large is the budget? Is it another 1%, 2% or 5%? Depending on what you want to do, it may need to be sizeable. Therefore, they are already having such bitter debates about the peanuts of €10 billion, stay tuned. I think it can come in a context of an overall ambitious solution but as a stand-alone item I do not think that it will occur.

Q It looks like Greece seems to be having financial problems. It is on the verge of near bankruptcy. Do you have any control mechanism in the EU to monitor, control and manage this kind of financial problem of individual countries?

A What you are referring to is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which turned into a sovereign debt

crisis which in 2012 turned into a genuine crisis of the euro. This crisis we saw had been triggered by the incompleteness of the architecture of the euro with issues on exerting fiscal disciplin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issues on joint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ctor and with the issue of diverging competitiveness between individual member states.

One of the answers to this was the setting up of the so-called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which has paid-in capital of €80 billion. It can give loans of up to €500 billion and is being used in restructuring and stabilizing the Euro area member states with such adjustment problems such as Ireland, Portugal, Spain, Cyprus and also Greece. These programs with Ireland, Portugal, Spain, and Cyprus have been very successful. Ireland, for example, is growing at the rate of 6-7%. They plan in the mid-2020s to reduce their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from where it was, 130%, down to 114%. Spain has added 650,000 new jobs to its economy over the last 10 months.

What is remaining is Greece. This evening in Brussels I still have a meeting on Greece to decide on the next disbursement for Greece. There, one must say, the process has been lengthy. The program will be over in August 2018. Greece is preparing to return to markets late this year or early 2018. It very much depends on the confidence that markets have in the conduct of economic policy, not by the Europeans but by the Greek government itself. Is what they are doing predictable? Is it

pro-growth? As such, we should also not forget that there has been already debt relief to the tune of nearly 100% of the GDP over the past five years. If it is necessary for the debt relief, we will follow in mid-2018. The maturity structure, the conditions of Greek government debts, is the most favorable globally. Any other sovereign in the world would give their left hand for having such financing conditions, with the average maturity of debts is around 30 years. The average interest rate on Greek government debt is around 1%. The gross financing needs are lower than for many other industrialized economies because the maturity of the debt stretches out already now into the 2060s. What I sometimes deplore is whatever one has done, for example, Greece is consumed by the media and immediately forgotten. It is as if it had never done it. And it wants some more. It is like *Oliver Twist*: “Please, sir, may I have some more?” But that was porridge. It was not a debt relief. Yes, there will be more. As a rational investor looking at the maturity structure of Greek debt, I would be buying Greek debt because they do not have any other redemptions with a very few exceptions very far into next decade. What is certain is that it is a combination of macroeconomics, microeconomics, and financing conditions, but also institutional governance. Investors want certainty on how the administration is working and how the judicial system is working. And they make, of course, comparisons with Germany or Holland, for example. Many prefer to invest in Germany, not in Greece. But there are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in Greece and I think there are upside possibilities for the economy of that country.

Overall, you are right in the sense that there are imbalances. There are differences in productivity as there are differences in productivity in Mississippi and Massachusetts. What happens if you sit in low productivity Mississippi? If you are a gifted person, you get on the bus and you are gone. But the euro area is not such an optimal currency area as the US and Switzerland, for example. Labor mobility is lower and that is why one needs to bring not the people to the jobs, but one needs to bring the jobs to the people. That is what I meant with the story of inclusive growth that stems partially from what national governments need to do to make the economy more productive. I like to think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 area institutions as a roof over a house. If you do not have the walls, the fundamental structure, which is good solid national policies, you do not even need a roof because the roof disappears without these walls. On the other hand, it is the roof. If you just have the walls, which is sound national policies, but not the roof of the EU policy framework above it, as soon as it starts raining, you get wet and the whole structure crumbles. So it is the interplay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EU level policy. Given that, the country you mentioned needs to be watched more closely.



My question is about your prospects about the G20 soon to be held in Germany. President Moon

is leaving for Germany soon and Donald Trump is going to meet Theresa May, Emmanuel Macron as well as Angela Merkel again without handshaking. What is your prospect on the G20 meeting in Germany?

A All I would say at this stage is it is much about the same questions which I tried to address in my talk: “Can one be persuaded that multilateral solutions for global problems are better than national solutions, or no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as the G20 is participated by 30 countries?” That goes for all of these issues that range from climate change. How do you combat climate change if you are doing it on your own? I just will not do it. How do you manage to make sure that what Korea is doing is good for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and not good for the environment only? That you can only do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greements. So how does one deal with that? How does one address possible concern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by going through those institutions and processes that WTO and other institutions provide for? You do not unilaterally shoot something from the hip. Can everybody be persuaded to go through this route? Or are there some who believe that they are in a position of perceived or subjective strength and therefore go through unilateral solutions? So that is how I perceive the big question of how Hamburg is going to be.

Do we believe and trust in a truly multilateral system? We are all representatives of countries that are neither too

small nor too big where security concerns are coupled with economic interests and economic concerns. So we rely on these things much more than on a very large country would do. So Hamburg for us is much more important than many G20 summits that we have had over the last 5 years or so. 6-9 years back the G20 was instrumental in helping us avoid a meltdown of the global economy. That was good. The G20 was the instrumental choice in doing that. But that was a financial crash and what we need to do now is avoid an institutional crash. Avoiding an institutional crash is of the essence. That is how I would perceive it.

Q The WTO is going on a drift because there is no leadership now due to that specific country. People say that a bad leader is better than no leader.

A Some people would say a bad decision is better than no decision. But sometimes when the decision gets too bad, I start wondering. “Is the WTO, the multilateral system, drifting around the picture only since the elections in the US in 2016?” Of course not! You can say that the elections in 2016, not only in the US but also in other countries, were symbols and symptoms of the things that had started much earlier.

The WTO has not been as effective over the last decade. We have entere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 areas that impinge much more on the perception of national autonomy than the simple trade liberalization of successiv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rounds from the 1950s and onwards did. If you look at the protests against proposed FTAs or trade agreements which we had in the US, it is very much about judicial, quasi-judicial issues. It is very much about what the impact is on national standards. Trade liberalization as we did it when we were kids, tariff reduction, and so on are not the problem.

Let's not forget we were already globally not sticking to the primacy of multilateral solutions long before anybody could spell Brexit or other things. Perceived inefficiency of the global system does not begin nor end with the WTO. The whole UN system has become unwieldy and could be more equitable, more efficient, better run, and leaner but meaner. But that is always the member states that let it be as it is.

Q There are signs of confidence in the market and there are signs of tapering as well. One significant one would be Mario Draghi's remark in an ECB forum last week. Some say that this is the sign of tapering, while others say that the market is misjudging. I wanted to hear your opinion on his speech and if the tapering is drawing near, then what should emerging markets prepare for?

A We have got a very good separation of competences in Europe as in many other areas between the monetary and other policy areas. I would not comment on it publicly on what Mario Draghi may have meant or may not have meant. What I would say, however, is that this situation

where the changes in monetary policy stance of major central banks are underway or may be underway in near future requires deep international cooperation more than ever in order for these changes in monetary stance to be productive and not disruptive. We know for a fact that major central banks are in continuous contact with each other. There is also the implication that as monetary policy were to normalize, one has to think of it as interaction with other policy areas, such as fiscal policies. For as the fiscal policy area is concerned, there is a degree of challenge also for finance ministers in order to make the overall policy stance more conducive to growth near potential with inflation rates which meet but do not exceed the inflation targets of central banks. I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not talking in public about monetary policies, which I have not done with my answer.

Q If I may, I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of another taper tantrum, though not as serious as the one we had with Fed's first indication of undoing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 suppose it is a legitimate position to think about rewinding the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Also, sooner or later Japan's central bank will have to do the same thing. If I were one of the G20 leaders, I would put much priority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given this global financial situation. Particularly, there are so many emerging economies which are very vulnerable to very rapid and volatile capital movements. Those problems are not really the emerging

economies' problems alone because emerging economies as a whole are very important and therefore spillover effects from the emerging world to advanced economies can be substantial. That is the reason why G20 leade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is.

Unfortunately, this does not seem to be on G20's priority this time. For that matter actually, I would hope our President Moon will play a role there to exert leadership to bring this to leaders' attention. G20's problem is that no country now takes ownership of exerting leadership. But G7 and G2 can talk between themselves. So countries like Korea and others should work together. Because the world is now journalistically saying a G-zero world or no polar world, we do need a collective leadership. G20 can be the collective leadership forum but unfortunately it is not working.

Q How do ordinary Europeans see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 I think what is very much in the media is the security, missile-related, human rights-related part of the story. That is something which is frequently shown to the European population through the media. I think that is also a reason why I would think that 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 and of several member states would be wishing to engage more deeply in this dialogue, or participate or contribute to solutions of the problem. At the same time, we have to be cognizant of the fact that Europe as a whole

and individual European member states do not participate in global security architecture. Many of them participate in NATO and related activities. There is only one global military power and as such, it is maybe less on the agenda in the sense that it directly impacts on the individual European politician and citizen because the direct security involvement of the US would impact on the US citizens.

Then you have a bit of disconnect and you have a perception of Korea which is such a huge economy and a huge trading nation that provides numerous jobs in Europe through direct investment. The peculiar thing is these perceptions are two different perceptions as if you are not talking about the same economy. For the men and the women in the street, they see Korea as a trading giant; then they disconnect and there is a security concern about the peninsula. So what I would hope for is that over the coming months or years there is more of a popular perception that we share an interest in solving through multilateral institutions, global issues. But we are not there yet.

Q Do you see there will be some compromise or there will be a continued dispute between Europe led by Chancellor Merkel and Donald Trump on trade, climate change issue and others?

A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hopes and a realistic projection. I have also seen some reports that there are hopes of rejuvenating the trade agreement but

I am not so sure about that. If you look at the overall tra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Europe, I see very little reason to believe that any part of that trade is done through unfair trading practices. This is maybe in stark contrast to what was the case for the 30-40 years ago when subsidies in different sectors were abundant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were the rule of the day. These days they have disappeared. And of course there are issues on both sides: by Americans, there are issues around government support for wide-bodied aircraft of indirect nature but there are fora for solving these issues and they have been solved over the decades one way or the other, usually through multilateral dispute mechanisms. So I would simply say that there are less than ever material reasons for such conflicts. We also note that for example what the latest texts on currency manipulations were which I think was a fair judgment of the situation, namely, that there is none. I think incidentally that the role of the Chinese authorities towards their exchange rates has been fairly depicted by the official analysis of the US authorities. If anything were to escalate on the trade front, this would be unfortunate which is not grounded in reality or facts. Therefore, we hope for the better.



세계경제연구원 출간물 및 특별강연 시리즈 목록

IGE Publications

Occasional Paper Series

1993

	Title	Author
93-0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1994

	Title	Author
94-01	Korea in the World: Today and Tomorrow	Paul Kennedy
94-02	US-Japa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A. Morse
94-03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oyoo Gyohten
94-04	Changing US and World Economies and their Market Prospects	Allen Sinai
94-05	Prospects for New World Monetary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ur Dunkel

1995

	Title	Author
95-01	Mexican Peso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95-02	The World Economic Trend and US Economic Outlook	Allen Sinai
95-03	New Games, New Rules, and New Strategies	Lester Thurow
95-04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uture Prospects	Robert Scalapino
95-05	US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James A. Baker III
95-06	US Trade Tension with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95-07	Prospects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Japan's Perspective	Hisao Kanamori

1996

	Title	Author
96-01	Tre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Future European Model: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al Decentralization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3	Evolving Role of the OECD in the Global Economy	Donald Johnston
96-04	The Political Context and Consequences of East Asian Economic Growth	Francis Fukuyama
96-05	Korea'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A. W. Clausen

1997

	Title	Author
97-01	East Asia in Overdrive: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	Wendy Dobson
97-02	American Security Policy in the Asia Pacific - Three Crisis and How We Deal with Them	William Perry
97-03	Public Sector Reform in New Zealand and its Relevance to Korea	Donald Hunn

1998

	Title	Author
98-01	Global Cooperations and National Government: Why We Nee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Edward Graham
98-02	Korean-American Relations: The Search for Stability at a Time of Change	W. Anthony Lake
98-03	Korea: From Vortex to Hub of Northeast Asia	Donald P. Gregg
98-04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Juergen B. Donges
98-05	Globalization and versus Tribalization: The Dilemm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uy Sorman

1999

	Title	Author
99-01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Marcus Noland
99-02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US Dollar/ Yen Exchange Rate: An Overview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enneth S. Curtis

	Title	Author
99-03	Prosp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and Other Asian Economies	Donald Johnston/ Hubert Neiss
99-04	Reflections on Contrasting Present-day US and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s	Hugh Patrick
99-05	Challenge for the World Economy: Where Do the Risks Lie?	Rudiger Dornbusch

2000

	Title	Author
00-01	North Korea-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00-02	Global New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Soogil Young
00-03	Global Trend in Financial Supervision	YongKeun Lee
00-04	Asia Grows, Japan Slows: Prospects for the World Economy and Markets	Kenneth S. Curtis
00-05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orris Goldstein
00-06	Prospects for Millennium Round Trade Negotiations an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effrey Schott/ InBeom Choi
00-07	Prospects for the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ne O. Krueger
00-08	Avoiding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Marcus Noland
00-09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Andrew Fraser
00-10	The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 Fred Bergsten
00-11	Korea and the US: Partners in Prosperity and Security	Stephen W. Bosworth
00-12	The Outlook for Asia and Other Emerging Markets in 2000	Charles Dallara/ Robert Hormats
00-13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 and Financ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Youngkeun Lee
00-14	How Should Korea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James P. Rooney

2001

	Title	Author
01-01	The US Economy on the Brink? Japan on the Edge? Implications for Korea	Kenneth S. Curtis
01-02	The Economic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ward Korea	Marcus Noland

	Title	Author
01-03	Overcoming 3Cs	Jeffrey D. Jones
01-04	High Tech, The Consequences for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on our Lives and Businesses	John Naisbitt
01-05	Korea and the IMF	Stanley Fischer
01-06	The Status of Korea's Restructuring: An Outlook over the Next 10 Years	Dominic Barton
01-07	The World Dollar Standard and the East Asian Exchange Rate Dilemma	Ronald McKinnon
01-08	Europe's Role in Global Govern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	Pierre Jacquet

2002

	Title	Author
02-01	Managing Capital Inflows: The Chilean Experience	Carlos Massad
02-02	Globalization and Korea: Opportunities and Backlash and Challenges	Martin Wolf
02-03	The US-Japan Economic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Korea	Marcus Noland
02-04	US Global Recovery: For Real? - Prospects and Risks	Allen Sinai
02-05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Patricia Hewitt
02-06	The World after 9/11: A Clash of Civilization?	Francis Fukuyama
02-07	Hanging Together: O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Barry Eichengreen
02-08	The Global Economy Rebounds - But How Fast and For How Long?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and Asia	Kenneth S. Courtis
02-09	The US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Dollar: An Outlook for the World Economy	Marcus Noland
02-10	The Doha Round: Objectives, Problems and Prospects	Jagdish Bhagwati
02-11	The Outlook for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2002-2003	Paul F. Gruenwald
02-12	The US and World Economy: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John B. Taylor
02-13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02-14	The Outlook for US Economy, the Dollar and US Trade Policy	C. Fred Bergsten
02-15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ies	Peter F. Cowhey

2003

	Title	Author
03-01	The US and World Economy: After the Iraq War	Allen Sinai
03-02	Korea in the OECD Family	Donald Johnston
03-03	The New Role of the US in the Asia-Pacific	Charles Morrison
03-04	The Global Economic Outlook and the Impact of President Bush's Economic Stimulus Package	Phil Gramm
03-05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Hans Tietmeyer
03-06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03-07	The Global Exchange Rate Regime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urrencies	John Williamson

2004

	Title	Author
04-01	General Outlook on the US and World Economy in 2004	Allen Sinai
04-02	Korea after Kim Jong-il	Marcus Noland
04-03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Hugh Patrick/ Gerald Curtis
04-04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04-05	The Case for a Common Currency in Asia	Robert Mundell
04-06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2005

	Title	Author
05-01	US Trade Policy after the 2004 US Election	Peter F. Cowhey
05-02	Asia in Trans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Dominic Barton
05-03	Post-Election US and Global Economies: Market Prospects, Risks, and Issues	Allen Sinai
05-04	The Korean Economy: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Yukiko Fukagawa
05-05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Competing Perspectives on Global Imbalances	Barry Eichengreen
05-06	Mutual Interdependence: Asia and the World Economy	Anne O. Krueger

	Title	Author
05-07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Global Economy	Wendy Dobson
05-08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East Asia and Asia-Pacific	Robert Scollay
05-09	Moody's Perspective on Korea's Ratings	Thomas Byrne

2006

	Title	Author
06-01	Oil Prices, Ben Bernanke, Inflation, and the Fourth Energy Recession	Philip K. Verleger
06-02	US and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Prospects: Picking up Steam	Allen Sinai
06-03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06-04	Japan's Foreign Policy for Economy and Japan-Korea FTA	Oshima Shotaro
06-05	Japan's Economic Recovery: Implications for Korea	Yukiko Fukagawa
06-06	M&A in the 21st Century and its Implications	Robert F. Bruner
06-07	Korea's Growing Stature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6-08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Common Asian Currency	Eisuke Sakakibara
06-09	Measuring American Power in Today's Complex World and China "Rising": What Lessons for Today from the Past?	Paul Kennedy/ Bernard Gordon
06-10	- Whither China? - The Global Scramble for IT Leadership: Winners and Losers	-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2007

	Title	Author
07-01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A View from Washington	Edwin J. Feulner
07-02	Germany: Understanding for the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Juergen B. Donges
07-03	Seismic Shifts, the World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2007	Allen Sinai
07-04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gel Gurría
07-05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A Chinese Perspective	Zhang Yunling
07-06	The Global Oil and Gas Market: Paradigm Shift and Implications for Korea	Fereidun Fesharaki

	Title	Author
07-07	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07-08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Yukiko Fukagawa
07-09	Digital Networked Economy and Global Corporate Strategy	Ben Verwaayen
07-10	Moving Forward on the KORUS FTA: Now for the Hard Time	Jeffrey Schott
07-11	The Korean Economy and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Barry Eichengreen
07-12	- The Outlook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oping with American Protectionism, Chinese Power, and Japanese Recovery - Economic Outlook for Korea and the Region	- David Hale - Jerald Schiff
07-13	- Why the US Will Continue to Lead the 21st Century? - The Outlook of the Indian Economy from Business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	- Guy Sorman - Tarun Das

2008

	Title	Author
08-01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Anne O. Krueger
08-02	The US "Risk" to Asia and Global Expansion	Allen Sinai
08-03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Guy Sorman
08-04	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James A. Baker III
08-05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Japanese Capital Markets	Atsushi Saito
08-06	Economic and Political Outlook for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World	Phil Gramm
08-07	The Outlook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anking	Charles Dallara
08-08	Can South Korea Still Compete?	Guy Sorman
08-09	- Sovereign Wealth Funds: Perceptions and Realities - Global Financial Markets under Stress	-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2009

	Title	Author
09-01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Subir Lall
09-02	Competing in an Era of Turbulence and Transition	Deborah Wince-Smith
09-03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Prospects, Policies, and Perspectives	Allen Sinai
09-04	US Trade Policy in the Obama Era	Jeffrey Schott
09-05	Beyond Keynesianism	Justin Yifu Lin
09-06	- Current Crisis and th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 Lessons from the Current Economic Crisis	-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09-07	- Obama, Can It Work? -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 Guy Sorman - Jeffrey Schott

2010

	Title	Author
10-01	The EU in Transition in the New Global Paradigm: Opportunities for Korea	Jean-Pierre Lehmann
10-02	Aftermath of the 'Crises': US and Global Prospects, Legacies, and Policies	Allen Sinai
10-03	The Global Economy: Where Do We Stand?	Anne O. Krueger
10-04	-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10-05	- Emerging Markets and New Frontiers - Asia in the Global Economy	- Mark Mobius - Dominique Strauss-Kahn
10-06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Paul A. Volcker

2011

	Title	Author
11-01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1-02	Safety and Economics of Nuclear Power	SoonHeung Chang
11-03	A Special Lecture on the Rebalancing of the Chinese Economy	Yu Yongding

	Title	Author
11-04	Reshaping the Global Financial Landscape: An Asian Perspectiv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1-05	- Economic Outlook and Future Challenges in Developing Asia - Europe's Financial Woes	- Haruhiko Kuroda - Richard N. Cooper
11-06	-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 Markets, 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 Danny Leipziger - Marcus Noland

2012

	Title	Author
12-01	US and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Turmoil: What Lies Ahead?	Allen Sinai
12-02	- Advancement and Edu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nd Economic Growth - Prospects of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 Nam Pyo Suh - Hans Martens
12-03	- The US Elections in 2012 and the Future of US Asia-Pacific Policy - Current Economic Affairs and the Financial Market - An Optimist View on the Global Economy	- Charles Morrison - Charles Dallara - Guy Sorman
12-04	- FTAs, Asia-Pacific Integration and Korea - The Eurozone Crisis: Update and Outlook	- Peter A. Petri - Nicolas Véron
12-05	- China's New Leadership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 Can the WTO Be Resuscitated?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Pacific	- Andrew Sheng - Jean-Pierre Lehmann

2013

	Title	Author
13-01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3-02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Guntram B. Wolff
13-03	-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Challenges and How to Solve Them - The Global Outlook: Grounds for Optimism, but Risks Remain Relevant	- Andreas Dombret - John Lipsky
13-04	- The State and Outlook of the US and Chinese Economy - Japan's Abenomics and Foreign Policy	- David Hale - Hugh Patrick/ Gerald Curtis

	Title	Author
13-05	-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e in Korea - Abenomics, Future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 TPP	- Guy Sorman -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6	- Unified Germany in Europe: An Economic Perspective - Chinese Economic Policymaking: A Foreigners' Perspective	- Karl-Heinz Paqué - Bob Davis
13-07	- The Outlook for Japan under Abenomics and Abenationalism - After the Pax Americana (Korea-China-Japa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 Whither to?)	- David Asher - David Filling

2014

	Title	Author
14-01	U.S. and Global Economics-Poised for Better Times	Allen Sinai
14-02	- Abe in the Driver's Seat: Where is the Road Leading? - The Secret of Germany's Performance: The Mittelstand Economy	- Gerald Curtis - Peter Friedrich
14-03	- The Eurozone Economy: Out of the Doldrums? - The Global Economy 2014	- Karl-Heinz Paqué - Martin Feldstein
14-04	Philanthropy and Welfare	Guy Sorman
14-05	-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 From BRICs to America	- Roberto Azevêdo - Sung Won Sohn
14-06	- Risks and Opportunities i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 Abe's Labor Reform and Innovative Strategies	- Charles Dallara - Yukiko Fukagawa
14-07	- China's Economy and Anti-Corruption Drive	- Bob Davis
	- US Fed's QE Ending & Asian Financial Markets	- Anoop Singh
	- China's New Economic Strategies and the Korea-China FTA	- Zhang Yunling

2015

	Title	Author
15-01	- Will the Global Economy Normalize in 2015?	- Allen Sinai
15-02	- The EU Economy in 2015: Will It Take Off?	- Jeroen Dijsselbloem
	- U.S.-Korea Economic Relations: Partnership for Shared Economic Prosperity	- Mark W. Lippert
	- The Hartz Labor Reforms of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 Peter Hartz
15-03	- What Makes China Grow?	- Lawrence Lau
	- What can Korea Learn from Europe's Slow Growth?	- Guy Sorman

	Title	Author
15-04	-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Switzerland	- H.E. Doris Leuthard
	- The Emerging New Asian Economic Disorder	- David L. Asher
15-05	-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 towards the New Normal	- Huang Yiping
	- Germany's Industry 4.0: Harnessing the Potential of Digitization	- Matthias Machnig
15-06	- Four Global Forces Changing the World	- Dominic Barton
	- Turbulence in Emerging Markets and Impact on Korea	- Sung-won Sohn
15-07	-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North Korea's Economic Potential	- Thomas Byrne
	- Perspectives on China's Economy and Economic Reform	- Huang Haizhou

2016

	Title	Author
16-01	- The U.S. and Global Prospects and Markets in 2016: A Look Ahead	- Allen Sinai
16-02	- The Key Themes and Risks of the Global Economy in 2016	- Hung Tran
	- The U.S. in the Global Economy	- Anne Krueger
16-03	-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 Martin Feldstein
	-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	- Gerald Curtis
16-04	-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 Marcus Noland & Sung-won Sohn
	- The World Economy at a Time of Monetary Experimentation and Political Fracture	- Charles Dallara
	-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 Mark Lippert

2017

	Title	Author
17-01	- Big Changes, Big Effects -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Prospects 2017	- Allen Sinai
17-02	- The 2017 US and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 Martin Feldstein
	- Automation,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Korea	- Jonathan Woetzel
17-03	-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 Between Brexit and Trump: Global Challenges for the European Union	- Thomas Wieser

Proceedings and Reports

	Title	Author
94-01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Il SaKong
94-02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US Cooperation	Il SaKong/ C. Fred Bergsten
95-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5-02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5-03	Korea-US Cooperation in the New World Order	Il SaKong/ C. Fred Bergsten
96-01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Il SaKong
96-02	Korea-US Relations in the Globalization Era	Il SaKong/ C. Fred Bergsten
96-03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6-04	I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in a Trap and Can It Get Out?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7-01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Il SaKong
97-02	Financial Reform in Kore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8-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V]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8-02	Korean Unifica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for Korea-US Relationship	Il SaKong
98-03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Il SaKong/ KwangSeok Kim
98-04	The Fifty Years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Il SaKong/ KwangSeok Kim
99-01	Asian Financial Crisis: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Il SaKong/ Young Hun Koo
99-02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Korea-US Relation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9-03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00-0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Il SaKong/ Yunjong Wang
00-02	Northeast Asia Forum 2000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itle	Author
00-03	Proceedings of the Sixth Korea-US 21st Century Council Meeting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1-01	Building Constituencies for a Global Liberal Trade Agend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1-02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EG Seoul Report)	Emerging Markets Eminent Persons Group
03-01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2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3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4	IGE's 1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4-01	How to Facilitate Business Start-up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8-01	Globalization and Korean Financial Sector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9-01	Lesson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and Kore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0-01	G20 Reform Initiativ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0-02	G20 Seoul Summit and Development Agend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1	New Global Financial Regulatory Regime in the Making: Impact on Asian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2	Culture, Korean Economy and the Korean Wav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3	Asia in the New Global Financial Scen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1	Fostering Hidden Champions: Lessons from German Experienc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2	Unification and the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3	The 20-Year Report of Activiti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4-01	Leadership & Policy Prioriti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5-01	Women and Growth Potential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itle	Author
17-0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IGE Brief+

2012

	Title	Author
12-01	Culture Industry, Service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Chong-Hyun Nam
12-02	Korea-Japan Economic Integration: Trend and Prospect	Jongyun Lee
12-03	The Eurozone Crisis and Challenges for Korea	Jung-Taik Hyun
12-04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2012: Why Is It More Critical This Time?	Il SaKong
12-05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	JaeUng Lee
12-06	We Must Be Prepared for the Korean Unification	Il SaKong

2013

	Title	Author
13-01	New World Economic Order and Forward-looking Korea-Japan Relationship	Il SaKong
13-02	Financial Reform and China's Political Economy	Yoon-Je Cho

2014

	Title	Author
14-01	No Future for a Society that isn't Alarmed at Attacks against Police	Il SaKong
14-02	To Make the 3-Year Agenda for Economic Reform Successful	Il SaKong
14-03	Reinventing Korea for a Trustworthy Nation	Il SaKong
14-04	Reemergence of Chin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l SaKong

2016

	Title	Author
16-01	Korea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and Surroundings	Il SaKong

Global Economic Horizons

1994

	Title	Author
94-01	Challenges of a Nomadic World	Jacques Attali
94-02	Globalism vs. Regionalism	YoungSun Lee
94-03	Prospects for the Chinese Market	Wan-soon Kim
94-04	How to Prepare for the 21st Century	Paul Kennedy
94-05	Death of Money/Post Capitalist Society	GiTaek Hong/ HanGwang Joo
94-06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ost-UR Era	Yoo Jae Won
94-07	Environment and Trade	Seong-Lin Na/ SeungJin Kim
94-08	Structural Adjustment in Japan and the Korean Economy	JongYoon Lee
94-09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nd Options for Korea	Il SaKong
94-10	Market Opening 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JongSeok Kim

1995

	Title	Author
95-01	Korea's Economy and it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Il SaKong
95-02	Globalization and Competition Norm of the Enterprises	Wan-soon Kim
95-03	What is Globalization?	ByungJoo Kim
95-04	Korea and the US: The Year 2000 in the Global Economy	James Laney
95-05	Will the World Economy Collapse?	ChukKyo Kim
95-06	Possibility of Continuously Strong Yen and Korea's Countermeasures	Jin-Geun Park
95-07	Globalization and the Korean Economy: Boom or Bubble?	BonHo Koo
95-0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Policy Measures	Chong-Hyun Nam
95-09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Korea-Japan Relations	WonTack Hong
95-10	Japan's Industrial Network Organizations and its Efficiency	JongYoon Lee

	Title	Author
95-11	Dilemma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JaeUng Lee
95-12	Overview of the Post-Liberation Korean Economy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wangSeok Kim

1996

	Title	Author
96-01	The Domestic Futures Market: Its Planning and Prospects	Sun Lee
96-02	Will the Era for Medium-sized Firms Be Opened?	Dong-Gil Yoo
96-03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of Korea	MooGi Bae
96-04	Global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Businesses	Cheong Ji
96-05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s in Korea	YoungCheol Park
96-06	Multilateralism vs. Regionalism: Can It Be Compatible?	SeWon Kim
96-07	Risks and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Derivatives	SangKee Min
96-08	Recent Economic Crisis and Policy Measures	KwangSeok Kim
96-09	Economic Development, Policy Reform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Order	SeongSeob Lee
96-10	The Role of Government in Transition	ByeongJu Kim
96-11	New Agenda of the WTO	WanSoon Kim

1997

	Title	Author
97-01	How to Solve the Labor Law Revision?	SooGon Kim
97-02	Why a Low Economic Growth Rate is Desirable	ChukKyo Kim
97-03	Lessons from the Hanbo Crisis	JaeUng Lee
97-04	Economic Manag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eokWoo Nam
97-05	A True Story of Company Growth: Lessons from the Hanbo Crisis	Cheong Ji
97-06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Collective Farming	PaYong Moon
97-07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	KeSop Yun
97-08	An Aging Population and the Budget Crisis	Jong-Gi Park
97-09	Korea's Response Strategies Based on a General Model of Foreign Exchange Crisis	JinGeun Park
97-10	How to Open an Era of Ventures	Dong-Gil Yoo

1998

	Title	Author
98-01	Has Korea's Economic Miracle Ended?	Chong-Hyun Nam
98-02	The Impossibility of Overcoming a Crisis without a Grand Paradigm Shift	DaeHee Song
98-03	Corporate Restructuring and Desirable Relationships between Banks and Corporations	SangWoo Nam
98-04	A Search for New Corporate Governance and Roles of Outside Directors	Yeong-gi Lee
98-05	Suggestions for Breaking the Circle of High Investments and High Savings	YeongTak Lee

1999

	Title	Author
99-01	Prospects and Agenda for Pension Reform	Jong-Ki Park
99-02	The Subway Strike and Review of Issues Regarding Full Time Unionists	Soo-Gon Kim
99-03	Financial Restructuring and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JunGyeong Park
99-04	Environmental Policy Agenda for the 21st Century	Jong-Ki Kim
99-05	How to Deal with Income Distribution Problems in Korea	KwangSeok Kim
99-06	Fallacy and Reality in Productive Social Welfare System	Kwang Choi
99-07	Toward Closer Economic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l SaKong
99-08	WTO New Round - Recent Ministerial Meeting in Seattle and its Prospect	Tae-ho Bark

2000

	Title	Author
00-01	The Prospect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Korean Economy 2000	Joon-Kyung Kim
00-02	What Happened to the Debate on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Il SaKong
00-03	The Recent Financial Crisis and Korea's Economic Future	Il SaKong
00-04	Revisit of High Cost with Low Efficiency	JongYun Lee
00-05	Is Asia's Recovery Sustainable?	Il SaKong

	Title	Author
00-06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Yoon-Je Cho
00-07	The Role of International Investors in the Evolu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JaeUng Lee
00-08	US Restructuring Experience and Lessons	YeongSe Lee

2001

	Title	Author
01-01	A Perspective of Korean Industries and Strategi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DoHoon Kim
01-02	Reconsidering Working Five Days a Week	Young-bum Park

Research Reports (Global Economy Series)

1994

	Title	Author
94-01	The Task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ost-UR Era and Policy Options for Korea	JaeWon Yoo
94-02	Current Discussions on Environment - Trade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Trade	SeungJin Kim/ SeongRin Na
94-03	Japan's Structural Adjustments to a Strong Yen and Strategies for the Korean Economy	JongYun Lee
94-04	Market Opening 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JongSeok Kim

1995

	Title	Author
95-01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ts Current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HanGwang Joo/ SeungJin Kim
95-02	Receptivity of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 Korean and Japanese Firms	JaeGyu Lee
95-03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ime and Korea's Strategy	JiHong Kim

1996

	Title	Author
96-01	The Domestic Futures Market: Its Planning and Prospects	Sun Lee
96-02	Japan's Industrial Network Organization and its Efficiency: A Case Study of the Automobile Industry	JongYun Lee

1997

	Title	Author
97-01	Romania's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Reform Issues	GwangSeok Kim/ ByeongJi Kim/ IIDong Koh

1998

	Title	Author
98-01	Sources of Korea's Economic Growth and Future Growth Potentials	KwangSeok Kim
98-02	Trade Patterns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Their Changes and Korea's Response	SeungJin Kim
98-03	The Global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WanSoon Kim/ NakGyun Choi
98-04	Intern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Korea's Strategy	JongGuk Park

2000

	Title	Author
00-01	Financial Crisis and Industry Policy in Korea	YeongSe Lee / YongSeung Jeong

2001

	Title	Author
01-01	Korea's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Their Evolution from 1961 to 1999	KwangSeok Kim
01-02	Technology Transfer and the Role of Information in Korea	YeongSe Lee

Special Lecture Series

1993

No.	Date	Title	Speaker
93-01	Feb 1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Mar 18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93-03	Apr 9	The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Outlook and Issues	Allen Sinai
93-04	Jun 22	Economic Outlook for the Pacific and Implications for Korea	Lawrence Krauss
93-05	Nov 4	Challenges of a Nomadic World	Jacques Attali

1994

No.	Date	Title	Speaker
94-01	Jan 5	Korea in the World: Today and Tomorrow	Paul Kennedy
94-02	Mar 22	US-Japa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A. Morse
94-03	Mar 25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oyoo Gyohten
94-04	Apr 18	Changing US and World Economies and their Market Prospects	Allen Sinai
94-05	Jun 28	Prospects for East European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Freeman
94-06	Sep 6	Prospects for New World Monetary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John Williamson
94-07	Oct 18	Prospects for New Trade Order and Implications for Korea	Arthur Dunkel
94-08	Dec 15	Financial Reform for the New Economy: Evaluations and Prospects	Jaeyoon Park

1995

No.	Date	Title	Speaker
95-01	Jan 26	Strategies for Globalization and Future Economic Policy	Jaehyong Hong
95-02	Jan 27	Mexican Peso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No.	Date	Title	Speaker
95-03	Mar 6	The World Economic Trend and US Economic Outlook	Allen Sinai
95-04	Mar 29	Korea and US: The Year 2000 in the Global Economy	James Laney
95-05	Apr 11	New Games, New Rules, and New Strategies	Lester Thurow
95-06	Apr 21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uture Prospects	Robert Scalapino
95-07	May 18	US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James A. Baker III
95-08	Jun 14	New World Trade Regime in the Post-UR Er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95-09	Jun 20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fter Mexico and Recent Currency Crisis	Stanley Fischer
95-10	Jul 19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New Challenges	Jagdish Bhagwati
95-11	Sep 1	Prospects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and the Role of Korea	Hisao Kanamori
95-12	Oct 17	Russian Intelligence System: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Vadim Kirpitchenko
95-13	Oct 19	Trend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Allen Sinai
95-14	Nov 7	Current US Political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for US-Korea Relations	Thomas Foley
95-15	Nov 13	APEC and the Worl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 Fred Bergsten
95-16	Nov 28	International Monetary Regime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Toyoo Gyohten
95-17	Dec 6	WTO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 Where Do We Go from Here?	Anne O. Krueger

1996

No.	Date	Title	Speaker
96-01	Jan 25	Challenges for the Global Trading System	Robert Lawrence
96-02	Feb 1	Trade Policies of the New Economy	Jaeyoon Park
96-03	Feb 26	Technology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Sylvia Ostry
96-04	Mar 19	Information Era: Korea's Strategies	Sukchae Lee

No.	Date	Title	Speaker
96-05	Apr 9	Future European Model: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e Decentralization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6	Apr 23	Evolving Role of the OECD in the Global Economy	Donald Johnston
96-07	May 7	New Issues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ingapore and Beyond	Chulsu Kim
96-08	May 17	Financial Globalization and World Economy: Implications for Korea	Paul A. Volker
96-09	May 21	Cooperation or Conflict? - A European Perspective on East Asia's Place in the Global Economy	Martin Wolf
96-10	May 23	East Asia in Overdrive: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s	Wendy Dobson
96-11	May 28	Japan's Banking Difficulties: Causes and Implications	Hugh Patrick
96-12	Jun 29	The Political Context and Consequences of East Asian Economic Growth	Francis Fukuyama
96-13	Jul 9	President Clinton's First Term and Prospects for a Second: Implications for Korea	Robert Warne
96-14	Sep 17	Global Free Trade: A Vision for the Early 21st Century	C. Fred Bergsten
96-15	Oct 22	Korea'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A. W. Clausen
96-16	Nov 26	The Free Trade Area of Clinton's Second Term: Implications for APEC and Korea	Richard Feinberg

1997

No.	Date	Title	Speaker
97-01	Feb 25	Economic manag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uckwoo Nam
97-02	Mar 18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Juergen B. Donges
97-03	May 27	American Security Policy in the Asia Pacific- Three Crisis and How We Dealt With Them	William Perry
97-04	Jun 10	Global Cooperations and National Government: Why We Nee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Edward Graham
97-05	Jul 8	Public Sector Reform in New Zealand and its Relevance to Korea	Donald Hunn

No.	Date	Title	Speaker
97-06	Sep 18	Korean-American Relations: The Search for Stability at a Time of Change	W. Anthony Lake
97-07	Oct 21	Korea: From Vortex to Hub of Northeast Asia	Donald P. Gregg
97-08	Dec 9	The Japanese Economic Slump and Currency Crises in Other East Asian Economies	Ronald McKinnon

1998

No.	Date	Title	Speaker
98-01	Jan 14	Globalization and versus Tribalization: The Dilemm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uy Sorman
98-02	Feb 3	Asian Currency Turmoil and Japan's Role	Takatoshi Kato
98-03	Feb 5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Challenges Facing Korea: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Charles Dallara
98-04	Apr 28	The Significance of the European Economic Monetary Union: in Europe and Beyond	Tue Rohsted
98-05	Jun 23	Asian Currency Crisis: What Has Happened?	Anne O. Krueger
98-06	Sep 17	How to Reform Public Sector Management	Nyum Jin
98-07	Dec 4	Economic Outlook for 1999: Asia and Korea	Hubert Neiss
98-08	Dec 11	North Korea in Global Perspective	Marcus Noland

1999

No.	Date	Title	Speaker
99-01	Feb 11	Korea in the World Economy: An OECD Appreciation of its Newest Member	Donald Johnston
99-02	Mar 5	Prospects for US Stock Exchanges and US Economy	Richard A. Grasso
99-03	Apr 6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US Dollar/Yen Exchange Rate: An Overview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enneth S. Courtis
99-04	May 19	Reflections on Contrasting Present-day US and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s	Hugh Patrick
99-05	Jul 22	Challenge for the World Economy: Where Do the Risks Lie?	Rudiger Dornbusch

No.	Date	Title	Speaker
99-06	Oct 5	How Should Korea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James P. Rooney
99-07	Dec 2	Global Financial Market: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Robert Hormats
99-08	Dec 14	North Korea-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2000

No.	Date	Title	Speaker
00-01	Jan 19	The Outlook for Asia and Other Emerging Markets in 2000	Charles Dallara
00-02	Feb 15	Global New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Soogil Young
00-03	Feb 29	Asia Grows, and Japan Slows- Prospect for the World Economy and Markets	Kenneth S. Courtis
00-04	Mar 28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orris Goldstein
00-05	Apr 26	Policies toward Continued Corporate and Financial Reform	Youngkeun Lee
00-06	May 26	Prospects for Millenium Round Trade Negotiations an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effrey Schott
00-07	Jun 23	Prospects for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ne O. Krueger
00-08	Jul 13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Marcus Noland
00-09	Sep 14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Andrew Fraser
00-10	Nov 10	The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 Fred Bergsten

2001

No.	Date	Title	Speaker
01-01	Feb 6	The US Economy on the Brink? Japan on the Edge? Implications for Asian and the World Economy	Kenneth S. Courtis
01-02	Feb 27	Economic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ward Korea	Marcus Noland
01-03	Apr 26	Jeffrey Jones' Evaluation of Korean Business and Economy: Overcoming Three 'C's	Jeffrey D. Jones

No.	Date	Title	Speaker
01-04	Jun 5	High Tech, The Consequences of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on our Lives and Businesses	John Naisbitt
01-05	Jul 9	Korea and the IMF	Stanley Fischer
01-06	Jul 19	Outlook on Korea Over the Next Ten Years	Dominic Barton
01-07	Sep 4	The World Dollar Standard and the East Asian Exchange Rate Dilemma	Roland McKinnon
01-08	Oct 9	Europe's Role in Global Govern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Korea	Pierre Jacquet
01-09	Nov 6	Globalization and Dangers in the World Economy	Martin Wolf
01-10	Nov 16	Preventing Financial Crises: The Chilean Perspective	Carlos Massad
01-11	Nov 20	The New US-Japan Economic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Korea	Marcus Noland

2002

No.	Date	Title	Speaker
02-01	Jan 9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Patricia Hewitt
02-02	Jan 16	The World After 9/11: A Clash of Civilizations?	Francis Fukuyama
02-03	Feb 22	Hanging Together: O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Barry Eichengreen
02-04	Apr 16	US and Global Recovery: For Real? Prospects and Risks	Allen Sinai
02-05	May 7	The Global Economy Rebounds - But How Fast and For How Long?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Kenneth S. Courtis
02-06	Jun 14	The US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Dollar	Marcus Noland
02-07	Jul 10	The Doha Round: Objectives, Problems and Prospects	Jagdish Bhagwati
02-08	Sep 24	The Outlook for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2002-2003	Paul F. Gruenwald
02-09	Oct 11	The Outlook for US Economy, the Dollar and US Trade Policy	C. Fred Bergsten
02-10	Oct 22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No.	Date	Title	Speaker
02-11	Oct 24	The US and World Economy: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John B. Taylor
02-12	Dec 3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ies	Peter F. Cowhey

2003

No.	Date	Title	Speaker
03-01	Apr 8	The US and World Economy: After the Iraq War	Allen Sinai
03-02	May 30	2003 Global Economy and Key Economic Issues: From the OECD's Perspectives	Donald Johnston
03-03	Jun 10	The New Role of the US in the Asia-Pacific	Charles Morrison
03-04	Jul 4	Global Economic Outlook and the Impact of President Bush's Economic Stimulus Package	Phil Gramm
03-05	Oct 28	The Global Exchange Rate Regime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urrencies	John Williamson
03-06	Nov 4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Hans Tietmeyer
03-07	Nov 21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2004

No.	Date	Title	Speaker
04-01	Feb 3	An Outlook for the US and World Economy in 2004	Allen Sinai
04-02	Apr 7	Korea After Kim Jong-il	Marcus Noland
04-03	Apr 21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04-04	Jun 1	- The US Election,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US Economic Performance,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04-05	Jul 13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04-06	Oct 14	The Case for a Common Currency in Asia	Robert Mundell

No.	Date	Title	Speaker
04-07	Nov 2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US Trade Policy	Peter F. Cowhey
04-08	Dec 7	Asia in Transition and Implication for Korea	Dominic Barton

2005

No.	Date	Title	Speaker
05-01	Jan 18	Post-Election US and Global Economies and Markets Prospects, Risks, and Issues	Allen Sinai
05-02	Mar 2	The Korean Economy: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Yukiko Fukagawa
05-03	Apr 12	A Rating Agency Perspective on Korea	Thomas Byrne
05-04	May 10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World Economy	Wendy Dobson
05-05	May 31	Visions of East Asian and Asian-Pacific Integration: Competing or Complementary	Robert Scollay
05-06	Jun 30	Mutual Independence: Asia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Anne O. Krueger
05-07	Sep 1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Competing Perspectives on Global Imbalances	Barry Eichengreen
05-08	Oct 13	Measuring American Power in Today's Complex World	Paul Kennedy
05-09	Oct 28	China "Rising": What Lessons for Today from the Past?	Bernard Gordon
05-10	Nov 15	Oil Prices, Ben Bernanke, Inflation, and the Fourth Energy Recession	Philip K. Verleger

2006

No.	Date	Title	Speaker
06-01	Jan 23	US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Prospects: Picking up Steam	Allen Sinai
06-02	Feb 14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06-03	Mar 28	Japan's Economic Recovery: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Yukiko Fukagawa
06-04	Apr 18	The Global Scramble for IT Leadership: Winners and Losers	George Scalise
06-05	May 10	Korea's Growing Stature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6-06	Jun 20	Japan's Foreign Policy for Economy and Japan-Korea FTA	Oshima Shotaro
06-07	Jun 30	Whither China?	Richard N. Cooper
06-08	Jul 20	M&A in the 21st Century and its Implications	Rpbert F. Bruner
06-09	Sep 1	Korea and the U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A View from Washington	Edwin J. Feulner
06-10	Sep 12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Common Asian Currency	Eisuke Sakakibara
06-11	Sep 15	Germany: Understanding the Economic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Juergen B. Donges
06-12	Sep 21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gel Gurría
06-13	Oct 12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A Chinese Perspective	Zhang Yunling
06-14	Nov 9	The Global Oil and Gas Market: Paradigm Shift and Implications for Korea	Fereidun Fesharaki
06-15	Nov 29	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2007

No.	Date	Title	Speaker
07-01	Jan 9	Seismic Shifts, the World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2007	Allen Sinai
07-02	Feb 13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Yukiko Fukagawa
07-03	Mar 9	Digital Networked Economy and Global Corporate Strategy	Ben Verwaayen

No.	Date	Title	Speaker
07-04	May 3	The Outlook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oping with American Protectionism, Chinese Power, and Japanese Recovery	David Hale
07-05	May 8	Key Trend in the 2008 US Presidential Campaign	Stephen J. Yates
07-06	May 11	Strengthening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7-07	Jun 21	Moving Forward the KORUS FTA: Now for the Hard Time	Jeffrey Schott
07-08	Aug 24	The Korea Economy and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Barry Eichengreen
07-09	Oct 4	Why the US Will Continue to Lead the 21st Century?	Guy Sorman
07-10	Oct 19	The Outlook of the Indian Economy from Business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	Tarun Das
07-11	Oct 25	Globalization, Diversity and Recruitment of Business Talents	Ben Verwaayen
07-12	Nov 8	Economic Outlook for Korea and the Region	Jerald Schiff
07-13	Dec 14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Anne O. Krueger

2008

No.	Date	Title	Speaker
08-01	Jan 15	The US "Risk" to Asia and the Global Expansion	Allen Sinai
08-02	Mar 25	Sovereign Wealth Funds: Perceptions and Realities	Robert C. Pozen
08-03	May 14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Guy Sorman
08-04	May 30	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James A. Baker III
08-05	Jun 10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Japanese Capital Market	Atsushi Saito
08-06	Jun 18	Economic and Political Outlook for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World	Phil Gramm

No.	Date	Title	Speaker
08-07	Sep 17	The Outlook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anking	Charles Dallara
08-08	Sep 23	Can South Korea Still Compete?	Guy Sorman
08-09	Oct 17	Global Financial Markets under Stress	Jeffrey Shafer
08-10	Nov 4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Dollar, and the Price of Oil	Martin Feldstein
08-11	Dec 9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ct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Subir Lall

2009

No.	Date	Title	Speaker
09-01	Jan 13	Competing in an Era of Turbulence and Transition	Deborah Wince-Smith
09-02	Feb 3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Prospects, Policies, and Perspectives	Allen Sinai
09-03	Feb 24	Current Crisis and th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Danny Leipziger
09-04	Feb 25	US Trade Policy in the Obama Era	Jeffrey Schott
09-05	Mar 19	Obama, Can It Work?	Guy Sorman
09-06	Apr 15	Lessons from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ne O. Krueger
09-07	Jun 23	Beyond Keynesianism	Justin Yifu Lin
09-08	Jul 21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Jeffrey Schott
09-09	Aug 20	Prospects for Investment aft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Role of IFC and Developing Countries	Lars H. Thunell
09-10	Oct 15	Is a Double-Dip a Realistic Possibility?	SungWon Sohn
09-11	Dec 8	The EU in Transition in the New Global Paradigm: Opportunities for Korea?	Jean-Pierre Lehmann

2010

No.	Date	Title	Speaker
10-01	Jan 21	Aftermath of the 'Crisis': US and Global Prospects, Legacies, and Policies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10-02	Apr 8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Yukiko Fukagawa
10-03	Apr 22	Emerging Markets and New Frontiers	Mark Mobius
10-04	May 18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Danny Leipziger
10-05	Jul 13	Asia in the Global Economy	Dominique Strauss-Kahn
10-06	Aug 31	The Global Economy: Where Do We Stand?	Anne O. Krueger
10-07	Oct 15	How Close Are We to a Double-Dip and Deflation?	SungWon Sohn
10-08	Nov 5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Paul A. Volcker

2011

No.	Date	Title	Speaker
11-01	Jan 20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1-02	Feb 24	Economic Outlook and Future Challenges in Developing Asia	Haruhiko Kuroda
11-03	Mar 23	Europe's Financial Woes	Richard N. Cooper
11-04	Apr 28	Safety and Economics of Nuclear Power	SoonHeung Chang
11-05	May 24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Danny Leipziger
11-06	Jun 29	Markets, 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11-07	Aug 30	A Special Lecture on the Rebalancing of the Chinese Economy	Yu Yongding
11-08	Dec 31	Global Economic Turbulence and Investment Implications	SungWon Sohn

2012

No.	Date	Title	Speaker
12-01	Jan 19	US and Global Economy and Markets Turmoil: What Lies Ahead?	Allen Sinai
12-02	Mar 13	The US Elections in 2012 and the Future of US Asia-Pacific Policy	Charles Morrison

No.	Date	Title	Speaker
12-03	Jun 22	Advancement and Edu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nd Economic Growth	NamPyo Suh
12-04	Jul 17	Prospects of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Hans Martens
12-05	Sep 14	Current Economic Affairs and the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12-06	Sep 18	An Optimist View on the Global Economy	Guy Sorman
12-07	Oct 11	FTAs, Asia-Pacific Integration and Korea	Peter A. Petri
12-08	Oct 29	The Eurozone Crisis: Update and Outlook	Nicolas Veron
12-09	Nov 21	China's New Leadership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Andrew Sheng
12-10	Dec 7	Can the WTO Be Resuscitated?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Pacific	Jean-Pierre Lehmann

2013

No.	Date	Title	Speaker
13-01	Jan 10	The US and Global Economies after the US Election and in the New Year	Allen Sinai
13-02	Jan 17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Guntram B. Wolff
13-03	Feb 8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Challenges and How to Solve Them	Andreas Dombret
13-04	Mar 22	The Global Outlook: Grounds for Optimism, but Risks Remain Relevant	John Lipsky
13-05	Apr 3	The State and Outlook of the US and Chinese Economy	David Hale
13-06	Apr 9	Japan's Abenomics and Foreign Policy	Hugh Patrick/ Gerald Curtis
13-07	Apr 30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e in Korea	Guy Sorman
13-08	May 21	The Japanese Economy an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9	Jun 27	Unified Germany in Europe: An Economic Perspective	Karl-Heinz Paqué
13-10	Jul 19	Chinese Economic Policymaking: A Foreigner's Perspective	Bob Davis
13-11	Sep 27	Japanese Politics and Abenomics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World	David Asher

No.	Date	Title	Speaker
13-12	Nov 15	Korea-China-Japan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er to?	David Philling

2014

No.	Date	Title	Speaker
14-01	Jan 7	U.S. and Global Economies - Poised for Better Times?	Allen Sinai
14-02	Jan 14	Swiss Made	R. James Breiding
14-03	Feb 20	Abe in the Driver's Seat: Where is the Road Leading?	Gerald Curtis
14-04	Feb 26	The Secret of Germany's Performance: The Mittlestand Economy	Peter Friedrich
14-05	Mar 5	The Eurozone Economy: Out of Doldrums?	Karl-Heinz Paqué
14-06	Mar 17	The Global Economy 2014	Martin Feldstein
14-07	Apr 3	Philanthropy and Welfare	Guy Sorman
14-08	May 16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Roberto Azevedo
14-09	May 23	From BRICs to America	SungWon Sohn
14-10	Jul 24	Risks and Opportunities i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Charles Dallara
14-11	Sep 12	Abe's Labor Reform and Innovative Strategies	Yukiko Fukagawa
14-12	Sep 26	a's Economy and Anti-Corruption Drive	Bob Davis
14-13	Oct 17	US Fed's QE Ending & Asian Financial Markets	Anoop Singh
14-14	Nov 14	China's New Economic Strategy and the Korea-China FTA	Zhang Yunlingng

2015

No.	Date	Title	Speaker
15-01	Jan 15	The EU Economy in 2015: Will It Take Off?	Jeroen Dijsselbloem
15-02	Jan 20	Will the Global Economy Normalize in 2015?	Allen Sinai
15-03	Apr 24	What Makes China Grow?	Lawrence Lau
15-04	Apr 28	U.S.-Korea Economic Relations: Partnership for Shared Economic Prosperity	Mark W. Lippert
15-05	May 5	The Hartz Labor Reforms of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Peter Hartz
15-06	Jun 2	What can Korea Learn from Europe's Slow Growth?	Guy Sorman

No.	Date	Title	Speaker
15-07	Jul 9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Switzerland	Doris Leuthard
15-08	Sep 11	The Emerging New Asian Economic Disorder	David L. Asher
15-09	Sep 21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 towards the New Normal	Huang Yiping
15-10	Oct 13	Germany's Industry 4.0: Harnessing the Potential of Digitization	Matthias Machnig
15-11	Oct 29	Four Global Forces Changing the World	Dominic Barton
15-12	Nov 12	Turbulence in Emerging Markets and Impact on Korea	Sung-won Sohn
15-13	Nov 17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North Korea's Economic Potential	Thomas Byrne
15-14	Dec 10	Perspectives on China's Economy and Economic Reform	Huang Haizhou
15-15	Dec 15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Sudhir Shetty Philip O'Keefe

2016

No.	Date	Title	Speaker
16-01	Jan 12	The U.S. and Global Prospects and Markets in 2016: A Look Ahead	Allen Sinai
16-02	Feb 23	The Key Themes and Risks of the Global Economy in 2016	Hung Tran
16-03	Mar 2	The U.S. in the Global Economy	Anne Krueger
16-04	May 16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Martin Feldstein
16-05	May 24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	Gerald Curtis
16-06	Jun 1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Mark Lippert
16-07	Sep 20	How Ready Are W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oh-Yeon Kim
16-08	Oct 21	The World Economy at a Time of Monetary Experimentation and Political Fracture	Charles Dallara
16-09	Nov 10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Marcus Noland & Sung-won Sohn

2017

		Title	Author
17-01	Jan 19	Big Changes, Big Effects -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Prospects 2017	Allen Sinai
17-02	Mar 13	The 2017 US and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Martin Feldstein
17-03	Apr 13	Automation,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Korea	Jonathan Woetzel
17-04	Jun 8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	Gerald Curtis & Hugh Patrick
17-05	Jul 5	Between Brexit and Trump: Global Challenges for the European Union	Thomas Wieser

Specialist's Diagnosis

2004

		Title	Author
04-01		A Critical Assessment of Korea's FTA Policy	Chong-hyun Nam
04-02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 on the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2005

		Title	Author
05-01		Korea in the World Economy: Challenges and Prospects	Il SaKong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Occasional Paper Series

1993

연 번	제 목	저 자
93-0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칠 영향	Ronald A.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ur Dunkel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2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3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4	미국 · 북한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5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 III
95-06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7	동북아경제권 개발 전망: 일본의 시각	Hisao Kanamori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Tre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3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연 번	제 목	저 자
96-0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 W. Clausen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7-02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J. Perry
97-03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Hunn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법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98-02	변화 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98-03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8-04	경제적 측면에서 분·독일 통일의 교훈	Juergen B. Donges
98-05	세계화와 종족화: 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1999

연 번	제 목	저 자
99-01	북한의 정치 · 경제 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99-02	엔-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	Kenneth S. Courtis
99-03	한국과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Donald Johnston/ Hubert Neiss
99-04	미국과 일본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한미관계: 번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수길
00-03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	이용근
00-04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5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6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FTA전망	Jeffrey Schott/ 최인범
00-07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연 번	제 목	저 자
00-09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경제정책방향	C. Fred Bergsten
00-11	한미관계: 변명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00-12	2000년 국제금융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Robert Hormats
00-13	기업·금융 관계: 현황과 전망	이용근
00-14	금융세계화, 어떻게 대처하나	James P. Rooney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2001년 미국, 일본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2002

연 번	제 목	저 자
02-01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2-02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험	Martin Wolf
02-03	美·日 경제현황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Patricia Hewitt
02-06	9·11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7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8	세계경제, 회복되나?	Kenneth S. Courtis
02-09	미국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10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11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 Gruenwald
02-12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3	9·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정책	Thomas C. Hubbard
02-14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5	미국의 IT산업 관련 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2003

연 번	제 목	저 자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Donald Johnston
03-03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침체된 독일·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사	Hans Tietmeyer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03-07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2004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20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미국 대통령 선거와 韓·美·日관계	Hugh Patrick/ Gerald Curti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04-05	아시아 화폐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04-06	외국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2005

연 번	제 목	저 자
05-01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5-02	아시아 경제·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05-03	제2기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4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Yukiko Fukagawa
05-05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arry Eichengreen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05-08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5-09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2006

연 번	제 목	저 자
06-01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06-02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3	한미FTA: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4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06-05	일본경제 회생과 한국경제	Yukiko Fukagawa
06-06	세계 M&A시장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6-07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06-08	아시아 공통통화와 아시아 경제통합	Eisuke Sakakibara
06-09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Paul Kennedy/ Bernard Gordon
06-10	- 20년 후의 중국, 어떤 모습일까? - 세계 IT 리더십 경쟁: 승자와 패자	-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2007

연 번	제 목	저 자
07-01	한미관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7-0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7-03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4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ía
07-05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7-06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7-07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07-08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전망과 과제	Yukiko Fukagawa
07-09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	Ben Verwaayen
07-10	한미FTA: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11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7-12	- 동아시아 경제통합, 어떻게 보나 - 한국경제 및 동아시아경제 전망	- David Hale - Jerald Schiff
07-13	- 21세기는 여전히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 기업	- Guy Sorman - Tarun Das

2008

연 번	제 목	저 자
08-01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08-02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연 번	제 목	저 자
08-03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자본시장의 현재와 전망	Ats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전망	Charles Dallara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8-09	- 국부펀드: 인식과 현실 -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2009

연 번	제 목	저 자
09-01	20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 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6	-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대응 -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교훈과 전망	-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09-07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 한미 경제 파트너십: 세계적 위기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Guy Sorman - Jeffrey Schott

2010

연 번	제 목	저 자
10-01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10-02	위기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 과제	Allen Sinai
10-03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4	-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 중국 경제의 虛와 實	-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10-05	-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런티어 -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 Mark Mobius -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2011

연 번	제 목	저 자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순홍
11-03	중국 경제의 재(再)균형	Yu Yongding
11-04	세계금융질서의 개편: 아시아의 시각	세계경제연구원
11-05	-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 Haruhiko Kuroda - Richard N. Cooper
11-06	- 기로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Danny Leipziger - Marcus Noland

2012

연 번	제 목	저 자
12-01	혼돈 속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분석과 2012년 전망	Allen Sinai
12-02	- 카이스트의 혁신 - 유로위기 해결책은 없나	- 서남표 - Hans Martens
12-03	- 20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정책 전망 -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 Charles Morrison - Charles Dallara - Guy Sorman
12-04	- FTA와 아태지역 통합 그리고 한국 -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	- Peter A. Petri - Nicolas Véron
12-05	-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 국제통상질서의 현황과 WTO의 미래	- Andrew Sheng - Jean-Pierre Lehmann

2013

연 번	제 목	저 자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 Andreas Dombret - John Lipsky
13-04	-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 David Hale - Hugh Patrick/Gerald Curtis
13-05	-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 Guy Sorman - Yukiko Fukagawa/ - Jeffrey Schott
13-06	- 통일 독일의 경제 · 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외국인인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 Karl-Heinz Paqué - Bob Davis

2014

연 번	제 목	저 자
14-01	2014년 세계경제, 나아질 것인가?	Allen Sinai
14-02	- 아베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 - 중견기업: 순항하는 독일경제의 비결	- Gerald Curtis - Peter Friedrich
14-03	- 유럽경제, 살아날 것인가? - 2014년 세계 경제의 향방은?	- Karl-Heinz Paqué - Martin Feldstein
14-04	복지향상과 기부문화	Guy Sorman
14-05	- 세계무역 환경과 세계경제의 미래 - 브릭스(BRICS)에서 미국으로	- Roberto Azevêdo - Sung Won Sohn
14-06	- 세계경제 회복, 위기가 기회인가 - 아베 정권의 노동개혁과 혁신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 Charles Dallara - Yukiko Fukagawa
14-07	- 중국경제 현황과 시진핑의 반부패운동 - 다가올 미 연준의 QE종료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 중국의 신경제 전략과 한-중 FTA	- Bob Davis - Anoop Singh - Zhang Yunling

2015

연 번	제 목	저 자
15-01	2015년 세계경제, 정상화될 것인가	Allen Sinai
15-02	-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 - 공동 번영을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Jeroen Dijsselbloem - Mark W. Lippert - Peter Hartz
15-03	- 중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며 -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Lawrence Lau - Guy Sorman
15-04	- 글로벌 에너지(중점)환경 이슈와 스위스의 경험 - 혼돈의 아시아 경제, 어디로 가는가	- H.E. Doris Leuthard - David L. Asher
15-05	- 중국 경제의 신장타이(新常态)는 무엇인가 - 디지털화를 활용한 독일의 산업혁명 4.0	- Huang Yiping - Matthias Machnig
15-06	- 세상을 바꾸는 네 가지 글로벌 흐름 - 격변하는 신흥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	- Dominic Barton - Sung-won Sohn
15-07	- 내가 본 한국, 한국 경제,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잠재력 - 중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 Thomas Byrne - Huang Haizhou

2016

연 번	제 목	저 자
16-01	2016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Allen Sinai
16-02	- 2016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 미국의 경제 · 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Hung Tran - Anne Krueger
16-03	-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 Martin Feldstein - Gerald Curtis

연 번	제 목	저 자
16-04	-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	- Marcus Noland & Sung-won Sohn
	- 통화정책 실험과 정치 분열기의 세계 경제	- Charles Dallara
	-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 Mark Lippert

2017

연 번	제 목	저 자
17-01	- 대변혁 속의 2017 - 미국과 세계 경제 금융 전망	- Allen Sinai
17-02	-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2017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	- Martin Feldstein
	-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화, 일자리, 그리고 직업의 미래	- Jonathan Woetzel
17-03	-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 Thomas Wieser

보고서 (책자)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사공 일
94-02	탈냉전시대 韓美 정치·경제 협력 관계	사공 일/ C. Fred Bergsten
95-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	세계경제연구원
95-02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	세계경제연구원
95-03	새로운 韓美 협력체제의 모색	사공 일/ C. Fred Bergsten
96-01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6-02	세계화시대의 韓·美관계	사공 일/ C. Fred Bergsten
96-03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I]	세계경제연구원
96-04	세계 반도체산업의 발전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경제연구원
97-01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7-02	한국의 금융개혁	세계경제연구원
98-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V]	세계경제연구원
98-02	한반도 통일 및 韓美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 일
98-03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사공 일/김광석

연 번	제 목	저 자
98-04	The Fifty Years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사공 일/김광석
99-01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사공 일/구영훈
99-02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미 관계	세계경제연구원
99-03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00-0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사공 일/왕윤종
00-02	동북아시아포럼 2000	세계경제연구원
00-03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 보고서	세계경제연구원
01-01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01-02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G 서울보고서)	Emerging Markets Eminent Persons Group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Ⅰ) - 새로운 세계질서: 기회와 도전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Ⅱ) -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의 앞날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Ⅲ) - 한국경제의 진로	세계경제연구원
03-02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국제회의	세계경제연구원
04-01	창업활성화, 어떻게 하나	세계경제연구원
08-01	세계화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	세계경제연구원
09-01	최근 세계금융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계경제연구원
10-01	G20 개혁과제: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세계경제연구원
10-02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세계경제연구원
12-01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체제: 아시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2-02	문화와 한국경제, 그리고 한류	세계경제연구원
12-03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대, 아시아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13-01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우다	세계경제연구원
13-02	통일과 한국경제	세계경제연구원
13-03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길잡이	세계경제연구원
14-01	리더십과 정책의 우선순위	세계경제연구원
15-01	여성과 성장잠재력	세계경제연구원
17-01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IGE Brief+

2012

연 번	제 목	저 자
12-01	문화산업과 서비스교역 그리고 한국경제	남종현
12-02	한일 간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그 추진방향	이종운
12-03	유럽 경제위기와 한국의 과제	현정택
12-04	이번 대통령 선거, 왜 더욱 중요한가	사공 일
12-05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 옴부즈맨 제도	이재웅
12-06	통일 준비 해둬야	사공 일

2013

연 번	제 목	저 자
13-01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사공 일
13-02	금융개혁과 중국의 정치경제	조운제

2014

연 번	제 목	저 자
14-01	경찰관이 폭행당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 없다	사공 일
14-02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성공하려면	사공 일
14-03	품격 있는 나라를 향한 정부개조	사공 일
14-04	중국의 재부상과 한국: 도전과 기회	사공 일

2016

연 번	제 목	저 자
16-01	세계와 주변 여건은 급변하는데...	사공 일

세계경제지평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유목적 세계의 도전	Jacques Attali
94-02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混在	이영선
94-03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김완순
94-04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5	화폐의 종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홍기택/주한광

연 번	제 목	저 자
94-06	UR 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재원
94-07	환경과 무역	나성린/김승진
94-08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 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종운
94-09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
94-10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종석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도전과 기회	사공 일
95-02	기업의 세계화와 경쟁 규범	김완순
95-03	무엇이 세계화인가	김병주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김적교
95-06	엔화강세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박진근
95-07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구본호
95-08	확산되는 특혜무역협정과 정책과제	남종현
95-09	역사인식과 한일 관계	홍원탁
95-10	일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효율성	이종운
95-11	국제경쟁력의 갈등	이재웅
95-12	해방 후 우리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김광석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국내 선물시장의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중소기업시대 열릴 것인가	류동길
96-03	단체교섭제도有感	배무기
96-04	세계화와 기업의 변신	지 청
96-05	우리나라 금융시장개방의 추진방향	박영철
96-06	다변주의 對 지역주의, 兩立은 가능한가?	김세원
96-07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과 효용	민상기
96-08	최근 경제위기감의 실체와 대응방향	김광석
96-09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이성섭
96-10	轉機를 맞이한 정부의 기능	김병주
96-11	WTO의 새로운 협상체제	김완순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노동법개정 難局의 해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前提한 複數勞組 허용	김수곤
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적교
97-03	韓寶사태의 敎訓	이재웅
97-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영	남덕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寶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팔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계섭
97-08	高齡化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종기
97-09	外換危機의 일반모형을 감안한 우리의 대응 방향	박진근
97-10	벤처기업시대를 열어가려면	유동길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한국의 經濟奇蹟은 끝난 것인가?	남중현
98-02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송대희
98-03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남상우
98-04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모색과 사외이사의 역할	이영기
98-05	고투자-고저축 고리의 단절을 위한 제언	이영탁

1999

연 번	제 목	저 자
99-01	연금개혁의 전망과 과제	박종기
99-02	지하철파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수곤
99-03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박준경
99-0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제	김종기
99-05	소득분배 문제의 실상과 대응방향	김광석
99-06	“생산적 복지” 정책의 허와 실	최 광
99-07	세계화시대의 韓中日 經濟協力 強化 方案	사공 일
99-08	시애틀 WTO 각료회의의 결렬과 향후전망	박태호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2000년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김준경
00-02	세계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공 일

연 번	제 목	저 자
00-03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사공 일
00-04	高비용 低능력구조의 부활	이종운
00-05	아시아 경제회복, 지속될 것인가?	사공 일
00-06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조운제
00-07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재웅
00-08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이영세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김도훈
01-02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박영범

연구보고서 (세계경제 시리즈)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재원
94-02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승진/나성린
94-03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종운
94-0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종석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주한광/김승진
95-02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한·일 기업의 수용 가능성 비교	이재규
95-03	WTO 체제와 우리의 대응	김지홍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국내 선물시장에 대한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일본 산업의 네트워크구조와 그 효율성	이종운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루마니아의 경제현황과 주요개혁과제	김광석/김병주/ 고일동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우리 경제의 成長要因과 成長潛在力 展望	김광석
98-02	한국과 ASEAN 諸國 間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대응 방향	김승진
98-03	국제무역체계의 도전과제	김원순/최낙균
98-04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종국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한국의 금융 위기와 산업 정책	이영세/정용승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우리나라의 산업·무역 정책 전개 과정	김광석
01-02	한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정보의 역할	이영세

전문가 진단

2004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한국 FTA정책의 虛와 實	남종현
04-02	외국 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2005

연 번	제 목	저 자
05-01	세계 속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특별강연

1993

연 번	제 목	연 사
93-01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경제관계	C. Fred Bergsten
93-02	UR 및 NAFTA의 장래와 한국의 대응	Jeffrey Schott
93-03	국제환경 변화와 세계경제 장·단기 전망	Allen Sinai
93-04	태평양지역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응	Lawrence Krauss
93-05	21세기 세계구도 변화와 한국	Jacques Attali

1994

연 번	제 목	연 사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칠 영향	Ronald A.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동구권 경제전망과 한국의 진출방안	Ronald Freeman
94-06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7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Arthur Dunkel
94-08	新경제의 금융개혁: 평가와 전망	박재운

1995

연 번	제 목	연 사
95-01	세계화 전략과 앞으로의 경제운용방향	홍재형
95-02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 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3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6	미국-북한 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7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 III
95-08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9	국제금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Stanley Fischer
95-10	세계무역기구 - 새로운 도전	Jagdish Bhagwati
95-11	동북아 경제권 개발 전망	Kanamori Hisao
95-12	러시아 정보제도의 현황과 변화 전망	Vadim Kirpitchenko
95-13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96년도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95-14	최근 미국 정치동향과 한미 관계	Thomas Foley

연 번	제 목	연 사
95-15	APEC과 세계무역체제	C. Fred Bergsten
95-16	국제금융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Toyoo Gyohten
95-17	WTO와 세계무역체제	Anne O. Krueger

1996

연 번	제 목	연 사
96-01	세계경제의 도전과 한국	Robert Lawrence
96-02	新경제의 통상정책	박재운
96-03	다자간 무역체제 하의 기술협약과 한국	Sylvia Ostry
96-04	정보화 시대: 한국의 대응	이석재
96-05	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6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7	다자간 무역체제 하의 새로운 과제	김철수
96-08	금융세계화와 세계경제	Paul A. Volcker
96-09	세계경제와 동아시아경제: 협력인가, 갈등인가?	Martin Wolf
96-10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6-11	위기에 처한 일본의 은행부문: 원인과 시사점	Hugh Patrick
96-12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13	클린턴 행정부의 업적과 재선 전망 및 한국에 미칠 영향	Robert Warne
96-14	세계무역 - 21세기 비전	C. Fred Bergsten
96-1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 W. Clausen
96-16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Richard Feinberg

1997

연 번	제 목	연 사
97-01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용	남덕우
97-02	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독의 교훈	Juergen B. Donges
97-03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Perry
97-04	범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Graham
97-05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Hunn
97-06	한미 관계: 변화 속의 안정	W. Anthony Lake
97-07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7-08	일본의 경제침체와 동아시아 통화위기	Ronald McKinnon

1998

연 번	제 목	연 사
98-01	세계화와 국가의 주체성	Guy Sorman
98-02	아시아 통화위기와 일본의 역할	Takatoshi Kato
98-03	한국의 통화 · 금융위기: 미국의 시각	Charles Dallara
98-04	유럽 단일통화(Euro)와 세계금융 질서	Tue Rohsted
98-05	아시아 통화위기: 원인과 전망	Anne O. Krueger
98-06	국가경영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진 념
98-07	99년의 아시아와 한국경제 전망	Hubert Neiss
98-08	최근 북한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Marcus Noland

1999

연 번	제 목	연 사
99-01	세계 속의 한국경제와 OECD	Donald Johnston
99-02	미국의 경제현황과 주식시장 전망	Richard A. Grasso
99-03	국제금융시장과 달러/엔 환율 전망	Kenneth S. Curtis
99-04	미국과 일본 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99-06	한국의 금융세계화, 어떻게 해야 하나?	James P. Rooney
99-07	국제금융시장 전망: 미국경제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Robert Hormats
99-08	한미관계: 변명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2000

연 번	제 목	연 사
00-01	2000년도 아시아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수길
00-03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urtis
00-04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5	기업 · 금융 구조조정의 향후 정책방향	이용근
00-06	시애틀 이후 WTO와 한미FTA 전망	Jeffrey Schott
00-07	세계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정책대응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00-09	지식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경제 · 대외 정책방향	C. Fred Bergsten

2001

연 번	제 목	연 사
01-01	2001년 미국, 일본 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내가 본 한국기업과 한국경제: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01-09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협: 긴급진단	Martin Wolf
01-10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1-11	21세기 미일 경제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Marcus Noland

2002

연 번	제 목	연 사
02-01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Patricia Hewitt
02-02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3	아시아 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협	Allen Sinai
02-05	세계경제, 회복되고 있나?	Kenneth S. Courtis
02-06	미국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07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08	2003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Paul F. Gruenwald
02-09	미국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 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0	9·11 사태 1주년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Thomas C. Hubbard
02-11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2	미국의 IT산업 관련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2003

연 번	제 목	연 사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2003 세계경제와 한국: OECD의 시각	Donald Johnston
03-03	亞太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03-06	침체된 독일·유럽경제가 주는 교훈과 정책적 시사	Hans Tietmeyer

연 번	제 목	연 사
03-07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2004

연 번	제 목	연 사
04-01	2004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외국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04-04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日 관계 -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 韓日 관계 - 미국 경제와 일본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04-05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04-06	아시아 화폐 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04-07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4-08	아시아 세계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2005

연 번	제 목	연 사
05-01	제2기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2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Yukiko Fukagawa
05-03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05-04	급부상하는 중국과 인도 경제	Wendy Dobson
05-05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arry Eichengreen
05-08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Paul Kennedy
05-09	중국의 부상, 어떻게 보아야 하나	Bernard Gordon
05-10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2006

연 번	제 목	연 사
06-01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2	한미FTA: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3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Yukiko Fukagawa
06-04	세계 IT 리더십 경쟁: 승자와 패자	George Scalise
06-05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06-06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연 번	제 목	연 사
06-07	20년 후의 중국, 어떻게 될까?	Richard N. Cooper
06-08	세계 M&A 시장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6-09	한미 관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6-10	아시아 공동통화와 아시아 경제통합	Eisuke Sakakibara
06-11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6-12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ía
06-13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6-14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6-15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2007

연 번	제 목	연 사
07-01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2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전망과 과제	Yukiko Fukagawa
07-03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전략	Ben Verwaayen
07-04	동아시아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David Hale
07-05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Stephen J. Yates
07-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위상강화 어떻게 하나?	Charles Dallara
07-07	한미FTA: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08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7-09	왜 21세기에도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Guy Sorman
07-10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기업	Tarun Das
07-11	세계화시대의 기업 인재 확보	Ben Verwaayen
07-12	2008년 한국경제와 동아시아 경제 전망	Jerald Schiff
07-13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2008

연 번	제 목	연 사
08-01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8-02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인식과 현실	Robert C. Pozen
08-03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자본시장의 현재와 전망	Ats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어떻게 되나?	Charles Dallara

연 번	제 목	연 사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8-09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Jeffrey Shafer
08-10	세계금융위기, 달러, 그리고 유가	Martin Feldstein
08-11	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경제 전망	Subir Lall

2009

연 번	제 목	연 사
09-01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2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3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우리의 대응	Danny Leipziger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Guy Sorman
09-06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우리의 교훈	Anne O. Krueger
09-07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8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한미 협력관계: 과제와 전망	Jeffrey Schott
09-09	경제위기 이후 세계의 투자 전망: IFC와 개도국의 역할	Lars H. Thunell
09-10	과연 더블딥 경제침체는 올 것인가?	손성원
09-11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2010

연 번	제 목	연 사
10-01	위기 이후의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과제	Allen Sinai
10-02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Yukiko Fukagawa
10-03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론티어	Mark Mobius
10-04	중국 경제의 虛와 實: 과제와 전망	Danny Leipziger
10-05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7	더블딥과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손성원
10-08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2011

연 번	제 목	연 사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Haruhiko Kuroda

연 번	제 목	연 사
11-03	유럽국가의 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Richard N. Cooper
11-04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순홍
11-05	기रो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Danny Leipziger
11-06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Marcus Noland
11-07	중국경제 재균형에 관한 특강	Yu Yongding
11-08	격동 속의 세계경제: 전망과 투자전략	손성원

2012

연 번	제 목	연 사
12-01	혼돈 속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Allen Sinai
12-02	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 정책 전망	Charles Morrison
12-03	과학기술 연구대학의 발전과 교육, 경제성장	서남표
12-04	유로 위기: 해결책은 없나?	Hans Martens
12-05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Charles Dallara
12-06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Guy Sorman
12-07	FTA와 아태지역통합, 그리고 한국	Peter A. Petri
12-08	유로 위기: 언제 끝나나?	Nicolas Véron
12-09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Andrew Sheng
12-10	국제통상질서의 현황과 WTO의 미래	Jean-Pierre Lehmann

2013

연 번	제 목	연 사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Andreas Dombret
13-04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John Lipsky
13-05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David Hale
13-06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Hugh Patrick, Gerald Curtis
13-07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Guy Sorman
13-08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9	통일 독일의 경제 · 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	Karl-Heinz Paqué
13-10	외국인이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Bob Davis

연 번	제 목	연 사
13-11	일본 아베정권의 정치 ·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David Asher
13-12	한중일 정치 · 경제 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David Philling

2014

연 번	제 목	연 사
14-01	2014년 세계경제, 나아질 것인가	Allen Sinai
14-02	스위스 메이드	R. James Breiding
14-03	아베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	Gerald Curtis
14-04	중견기업: 순항하는 독일 경제의 비결	Peter Friedrich
14-05	유럽경제, 살아날 것인가?	Karl-Heinz Paqué
14-06	2014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Martin Feldstein
14-07	복지향상과 기부문화	Guy Sorman
14-08	세계무역 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미래	Roberto Azevêdo
14-09	브릭스(BRICS)에서 미국으로	Sung Won Sohn
14-10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Charles Dallara
14-11	아베의 노동개혁과 혁신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Yukiko Fukagawa
14-12	중국경제 현황과 시진핑의 반부패운동	Bob Davis
14-13	다가올 미 연준의 QE 종료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Anoop Singh
14-14	중국의 신경제전략과 한중 FTA	Zhang Yunling

2015

연 번	제 목	연 사
15-01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	Jeroen Dijsselbloem
15-02	2015년 세계경제, 정상화될 것인가	Allen Sinai
15-03	중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며	Lawrence Lau
15-04	공동 번영을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Mark W. Lippert
15-05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Peter Hartz
15-06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Guy Sorman
15-07	글로벌 에너지 · 환경 이슈와 스위스의 경험	Doris Leuthard
15-08	혼돈의 아시아 경제, 어디로 가는가	David L. Asher
15-09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는 무엇인가	Huang Yiping
15-10	디지털화를 활용한 독일의 산업혁명 4.0	Matthias Machnig
15-11	세상을 바꾸는 네 가지 글로벌 흐름	Dominic Barton
15-12	격변하는 신흥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	Sung-won Sohn

연 번	제 목	연 사
15-13	내가 본 한국, 한국 경제,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잠재력	Thomas Byrne
15-14	중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Huang Haizhou
15-15	동아태지역 국가의 인구 노령화 문제와 경제성장 전망	Sudhir Shetty Philip O'Keefe

2016

연 번	제 목	연 사
16-01	2016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16-02	2016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Hung Tran
16-03	미국의 경제 · 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ne Krueger
16-04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Martin Feldstein
16-05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Gerald Curtis
16-06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Mark Lippert
16-07	제4차 산업혁명, 우리의 준비는	Doh-Yeon Kim
16-08	통화정책 실험과 정치 분열기의 세계 경제	Charles Dallara
16-09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	Marcus Noland & Sung-won Sohn

2017

연 번	제 목	연 사
17-01	대변혁 속의 2017 - 미국과 세계 경제 금융 전망	Allen Sinai
17-02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2017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	Martin Feldstein
17-03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화, 일자리, 그리고 직업의 미래	Jonathan Woetzel
17-04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Gerald Curtis & Hugh Patrick
17-05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Thomas Wieser